

The Kyeonggido
Adolescence
Folk Art Festival
Report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결과보고서

제 11회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  부천문화원
후원 :  서울특별시의경기도 |  경기도의회 |  부천시
 부천시의회 |  한국문화원연합회

제11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결과보고서

The Kyeonggido
Adolescence
Folk Art Festival
Report



contents



I. 행사개요

1. 목적	6
2. 개요	6
3. 운영방침	6
4. 추진방향	6
5. 추진위원회 구성	7
6. 축제 실무 추진단 구성	7
7. 주요 행사 구성	8
8. 행사 일정표	9
9. 행사장 안내도	10
10. 참가현황	11
11. 시상계획	12
12. 연도별 개최지 및 수상현황	12

II. 추진과정

1. 실무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진행 과정	15
2. 세부 추진일정	16

III. 프로그램 별 시행결과

1. 개막식	19
1-1. 개요	19
1-2. 세부 일정	19
1-3. 세부 진행 일정	19
1-4. 개막식 입장 도열 안내	20
2. 폐막식	21
2-1. 개요	21
2-2. 세부일정	21
2-3. 세부 진행 일정	21
3. 경연대회	21
3-1. 개 요	22
3-2. 경연일정표	22
3-3. 세부 진행 일정	23
3-4. 수상 현황	23
3-5. 출연종목 소개(출연순서별)	25
오산 안성 부천 수원 평택 양주	
성남 가평 포천 이천 남양주 광명	
구리 화성 하남 동두천 여주 파주	
과천 용인 시흥 김포 양평 연천	
군포 고양 안산 광주	
4. 체험 및 부대행사	54



IV. 운영부분

1. 인력운영	
1-1. 행사진행인력 운영	57
1-2. 자원봉사자 운영	57
2. 시설임차 현황	57
2-1. 시설 임차 개요	57
2-2. 시설 설치 계획	58
3. 행사 기록	58
4. 주차 관리 운영	59
4-1. 주차관리 개요	59
4-2. 장소별 주차 관리	59
5. 행사보험	59
6. 유관기관 및 부서별 협조	59

V. 홍보

1. 인쇄홍보물	61
1-1. 제작내역	61
1-2. 디자인 시안	61
2. 옥외홍보물	63
2-1. 제작내역	63
2-2. 디자인 시안	64
3. 언론홍보	69
3-1. 게재현황	69
3-2. 언론보도 스크랩	69

VI. 종합평가

74

VII. 부록

77



I. 행사 개요

1. 목적
2. 개요
3. 운영방침
4. 추진방향
5. 추진위원회 구성
6. 축제 실무 추진단 구성
7. 주요 행사 구성
8. 행사 일정표
9. 행사장 안내도
10. 참가현황
11. 시상계획
12. 연도별 개최지 및 수상현황

1. 목 적

- 경기도내 각 시·군의 민속예술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 전통문화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여 경기 민속예술에 대한 긍지를 높이는 계기 마련
- 한국의 민속예술과 다른 나라의 민속예술의 교류를 통해, 세대 및 인종간의 벽을 허물고 남녀노소, 다문화가정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

2. 개 요

- 행 사 명 : 제11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 기 간 : 2016년 9월 23일(금)~9월 24일(토)
- 장 소 : 경기도 부천체육관
- 주 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주 관 : 부천문화원
- 후 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부천시, 부천시의회, 한국문화원연합회

3. 운영방침

- 경연종목은 경기도 각 지역의 민속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전통성 유지 및 계승을 위한 내용으로 민속놀이, 민속무용, 민속극, 소리 등 장르의 구분 없이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함.
- 참가작품은 인위적 연출을 자제하고 향토 민속예술의 원형 재현에 충실해야함.
- 객관적인 심사규정으로 수상자 선정에 공정성 확보
- 우수 단체(대상 및 최우수/ 2팀)는 한국민속예술제 경기도 대표로 참가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접수창구의 단일화(시군 문화원을 통해서만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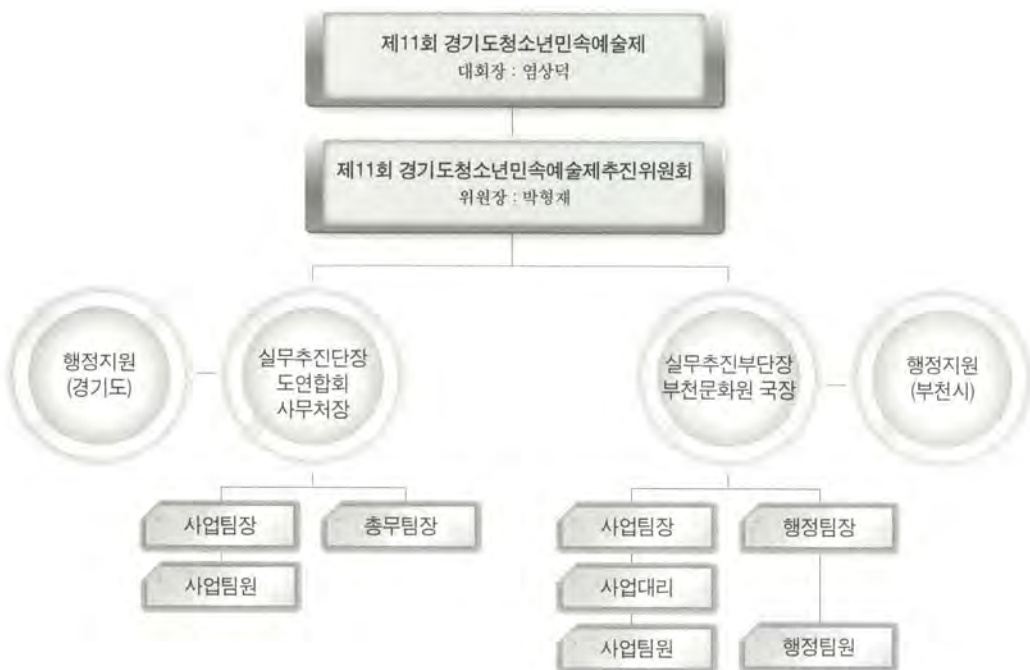
4. 추진방향

- 경기도 민속예술 발전을 위한 경연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살림
-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체험부스 및 부대행사를 마련, 경연참가자 및 관람객들이 적극적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함
-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참가자 및 관람객에게 최상의 문화서비스 제공
- 다양한 홍보 전략을 통해, 경기도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함

5. 추진위원회 구성

구 분	소 속	이 름	직 위	비 고
대회장 (당연직)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염 상 덕	연합회장	
추진위원장 (당연직)	부천문화원	박 형 재	원장	
부위원장	의정부문화원	조 수 기	연합회 부회장	
부위원장	안산문화원장	김 봉 식	연합회 부회장	
위원	시흥문화원	정 원 철	경기도 원장단	감사
위원	이천문화원	조 명 호	경기도 원장단	제20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최우수상 수상지역
위원	부천문화원	양 경 직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수석위원	
위원 (당연직)	경기도청	최 병 갑	문화정책과장	
위원 (당연직)	부천시청	이 태 훈	문화예술과장	
위원 (당연직)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최 영 주	사무처장	실무추진단장
위원 (당연직)	부천문화원	최 의 열	사무국장	실무추진부단장 현장총괄

6. 축제 실무추진단



소 속	업 무
실무추진단장	총연출, 업무총괄, 추진위회의 등
실무추진부단장	시, 도 관계자회의, 유관기관 협의, 행사기획, 섭외 등
사업팀장	예산편성, 재정, 회계, 각종계약서, 개/폐막식, 경연대회
총무팀장	홍보물 제작 및 발주, 오프라인 홍보, 심사위원 담당
사업팀원	후생 및 실비보상, 본부 및 운영지원
부천문화원 사업팀장	축제 총괄 지원, 현장진행 및 관리
부천문화원 행정팀장	본부 및 운영 지원, 물품지원, 내빈만찬
부천문화원 사업대리	자원봉사관리, 임차시설설치 및 진행
부천문화원 사업팀원	관내 홍보, 행정업무지원
부천문화원 행정팀원	주차관리, 전시, 체험행사 관리

7. 주요 행사 구성

구 분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주 관
의 전 행 사	개막식	9. 23(금) 11:00	메인무대	부천문화원
	폐막식	9. 24(토) 18:00	메인무대	부천문화원
경 연 대 회	1일차 경연: 13개 팀 참가	9. 23(금) 9:00~18:00	메인무대	도연합회
	2일차 경연: 15개 팀 참가	9. 24(토) 9:00~17:30	메인무대	
전 시 · 체 험 행 사	문화예술 체험부스		운동장 트랙 특별부스	부천문화원
	먹거리	9.23(금)~9.24(토) 10:00~17:00	실내:매점 야외:부스	
	부천역사문화해설		주차장 특별부스	
	송파산대놀이 공연	9.24(토) 16:00~17:00	운동장 트랙 야외공연무대	
축하공연	개막식 : 나눔소리(대북) 오은령무용단(전통무용)	9.23(금) 11:10~11:30	메인무대	
	폐막식 : 부천문화원 챔버오케스트라 프라임우쿨렐레 앙상블	9.24(토) 17:30~18:00		

8. 행사 일정표

구 분	시 간	메인무대	C출구	종합운동장 트랙
1일차 9/23	9:00	경연대회 3개팀	먹거리부스 (섭취)	종합 안내소 문화관광 안내소 문화예술체험부스
	10:00			
	11:00	개막식		
	12:00	점심시간		
	13:00	경연대회 10개팀		
	16:00			
	17:00			
	18:00			
2일차 9/24	9:00	경연대회 6개팀	먹거리부스 (섭취)	종합 안내소 문화관광 안내소 문화예술체험부스
	10:00			
	12:00	점심시간		
	13:00	경연대회 9개팀		
	16:00	특별공연		
	17:30			
	18:00	폐막식		

9. 행사장 안내도



10. 참가현황 (경연순)

지역	경연작품명	경연구분	단체명
오산	오산외미거북진놀이	민속놀이	오산외미걸립농악보존회
안성	남사당 웃다리 풍물	농악	서운중학교 풍물단
부천	중리풍물놀이	농악	부천여월초
수원	수원두레	농악	수원문화원
평택	파일난장 등대굿놀이	민속놀이	청소년 예술단 '예운'
양주	양주 큰오미 집터다지는소리	민속놀이	양주들노래보존회
성남	오리뜰 농악	농악	성남농악보존협회
가평	가평잣 터는 소리	생업	가평문화원
포천	틀못이 동해세우기	민속놀이	포천문화원
이천	이천거북놀이	민속놀이	대월초등학교
남양주	늘을 기우제	민속놀이	남양주문화원
광명	철산리 두레농악	농악	충현고 연희단
구리	웃다리 풍물	농악	구리문화원
화성	전통 화성두레 판굿	농악	(사)화성두레농악보존회
하남	웃다리 사물놀이	농악	신장고등학교 풍물반
동두천	아차노리 수살막이 놀이	민속놀이	동두천중앙고등학교
여주	신지리 장채놀이	민속놀이	문화체험공동체 다스름
파주	파주농악	농악	전통예술단 호연
과천	과천나무꾼놀이	민속놀이	과천문화원
용인	용인웃다리판굿	농악	능원초등학교 풍물부
시흥	시흥시 군자봉 설화	민속극	시흥문화원
김포	조강치군패놀이	민속놀이	김포문화원
양평	양평두레농악	민속놀이	(사)남사당놀이경기북부지회
연천	수레울 길놀이	민속놀이	연천중학교 풍물팀 "너나들이"
군포	군포군웅제민속마당	민속놀이	군포문화원
고양	고양맹인소놀이	민속놀이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
안산	안산와리풍물놀이	농악	본원어울림
광주	남한산성취고수악대	민속놀이	광주중앙고등학교 취고수악대

11. 시상 계획

시상구분	훈격	시상대상	시상품	
계		31개팀/2인		
단체	대 상	경기도지사	1개팀	우승기·상장·상패
	최우수상	도회의의장	1개팀	상장·상패
	우 수 상	한국문화원연합회장	1개팀	상장·상패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1개팀	상장·상패
		부천시장	1개팀	상장·상패
	공 로 상	부천시장	1개팀	상장·상패
	예 술 상	부천시장	3개팀	상장·상패
	민 속 상	부천시회의의장	3개팀	상장·상패
	장 려 상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18개팀	상장·상패
	소 품 상		1팀	상장·상패
개인	지 도 상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1명	상장·상패
	연 기 상		1명	상장·상패

12. 연도별 개최지 및 수상 현황

○ 경기도민속예술제(일반부)

대회명	일시	개최지	장소	출연팀	대상팀
제1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1982.10.16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20개팀	연천군 아미산울어리
제2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1983.10.28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21개팀	김포군 주사손돌공진흔제
제3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1984.10.28	수원시	수원실내체육관	22개팀	이천군 거북놀이
제4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1985.10.4~5	수원시	수원실내체육관	26개팀	강화군 용두레질 노래
제5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1986.9.12~13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36개팀	김포군 두레농요
제6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1989.9.8~9	안양시	안양종합운동장	26개팀	김포군 상두꾼소리
제7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1991.9.12~13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33개팀	포천군 메나리
제8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1993.9.2~3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27개팀	수원시 장치기
제9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1994.9.8~9	안양시	안양종합운동장	30개팀	광명시 광명농악놀이
제10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1995.9.14~16	성남시	성남종합운동장	27개팀	수원시 이의동길마재줄다리기

대회명	일시	개최지	장소	출연팀	대상팀
제11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1997.9.24~26	여주군	여주공설운동장	23개팀	고양시 신아대말장 박는 소리
제12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1999.9.1~2	동두천시	동두천종합운동장	17개팀	동두천 이담풍물놀이
제13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2001.9.22~23	광명시	광명종합운동장	18개팀	광명시 아방리 줄다리기
제14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2003.9.19~20	고양시	고양시 증산공원	25개팀	광명시 아방리 농요
제15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2005.9.1~2	안성시	안성종합운동장	26개팀	이천시울면장승달구지 화성시 화성농악
제16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2007.9.1~2	안산시	안산시호수공원 중앙광장	28개팀	과천시 나무꾼 놀이
제17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2009.9.4~5	용인시	용인종합운동장	29개팀	동두천 동두내 옛소리 물까부리
제18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2011. 9.30~10.1	양주시	양주별산대놀이 마당	28개팀	-
제19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2013.9.27~28	포천시	포천시 종합운동장	29개팀	평택 거북놀이
제20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2015.9.18~19	오산시	오산시 종합운동장	30개팀	수원 두레

○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대회명	일시	개최지	장소	출연팀	대상팀
제1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1996.9.17~18	수원시	수원체육관	25개팀	안성시 남사당 풍물놀이
제2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1998.9.22~23	수원시	수원체육관	23개팀	고양시 두레풍물놀이
제3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2000.9.23~24	부천시	부천시청 앞 잔디광장	25개팀	광명시 아방리줄다리기
제4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2002.9.28~29	시흥시	옥구공원 내 운동장	26개팀	광주시 광지원농악
제5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2004.9.16~17	용인시	용인시실내체육관	26개팀	포천메나리 농악놀이
제6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2006.9.7~8	의정부시	의정부시실내체육관	27개팀	광명 아방리 들소리
제7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2008.9.5~6	성남시	성남시실내체육관	30개팀	고양시 마두장군놀이
제8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2010.9.9~10	시흥시	시흥시체육관	29개팀	양주시 양주들노래
제9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2012.9.21~22	화성시	화성종합경기타운	28개팀 (1팀 시연)	광주시 광지원농악
제10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2014.10.16~17	의정부시	의정부시실내체육관	25개팀	평택 어업요

II. 추진 과정

1. 실무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진행 과정
2. 세부 추진일정

1. 실무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진행 과정

구분	일시	주요내용
실무추진단 기획회의 (1차)	3.28	• 행사장(부천체육관) 현지 답사 • 제11회 축제 진행 내용 검토 및 참고사항 점검 • 전체 축제 기획 방향 논의 •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 주최, 주관별 총사업비 편성 • 행사 일정 논의
실무추진단 기획회의 (2차)		• 축제 기획 방향 및 컨셉 논의 • 부천시청 문화예술과 회의 • 시설임대 및 홍보물 단가 조사
제1차 축제추진위원회	5.30	• 장소: 부천문화원 회의실 • 논의사항: -장소 답사 -축제기본계획안 검토 및 승인 -시상계획 수정 및 시상금 내역 집중 논의
시군 관계자 회의	8.26	• 장소: 부천문화원, 부천 체육관 • 진행내용: - 제11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행사 개요 및 운영계획 안내 - 참가팀 건의사항 수렴 - 시, 군 참가팀 경연대회 순서 추천 - 행사장 답사
실무추진단 기획회의 (4차)		• 시설 임차 내역 확정, 업체 섭외 • 홍보물 시안 확정 및 옥외광고 업체 섭외 • 세부 프로그램 별 업무분장 확정 • 개막식 입장 순서 확정 • 후생 및 행사기록 관련 논의
실무추진단 기획회의 (5차)	9.19	• 현장 시설 설치 계획 논의 • 민속 조형물 제작 및 배치 관련 논의 • 업무분장에 따른 최종 진행사항 점검
실무추진단 기획회의 (6차)	9.20	• 업무분장에 따른 최종 진행사항 점검
실무추진단 기획회의 (7차)	9.22	• 업무분장에 따른 최종 진행사항 점검
심사위원 회의	9.23	• 심사 기준 및 방법 설명 • 세부 심사기준 논의
회장단 평가회의	9.24	• 전체 축제 운영 및 진행관련 평가회의 진행
원장단 평가회의	9.24	• 경연대회 관련 평가회의 진행
실무추진단 평가회의 (1차)	9.24	• 전체 축제 운영 및 진행관련 평가회의 진행 • 향후 결과보고서 제작 관련 일정 협의
실무추진단 평가회의 (2차)	12.29	• 결과보고서 원고를 바탕으로 2차 평가회의 진행

2. 세부 추진일정

구분	주요 내용	기간 / 일자	비 고
기본계획수립	축제 기본계획안 완성	3/28	
	축제 1차 세부 운영계획안 완성	6/1	
	축제 세부 운영계획(최종) 완성	8/30	
의전행사	축제 계획서 확정	~9/1	
	개&폐막식 출연진 확정	~8/25	
	의전 확정/ 초청장 발송	~9/1	
	세부 진행 계획서 작성	~9/1	
	진행 일정표 의전 대상자에게 전달	~9/9	
	시나리오 확정	~9/13	
	경연대회 계획안 확정	5/31	
행사 부 분	경연대회 관련 공문 발송	5/31	
	경연대회 참가단체 모집(신청서 제출)	~6/30	
	실무자 간담회 진행	8/26	
	참가팀 확정 및 세부기획 진행	9/1	
	상장 의뢰 및 수신/ 상패 및 우승기 제작	~8/31	
	예행연습 진행	9/22	
	전체 행사 큐시트 작성	~9/12	
	축제 계획서 확정	9/1	
	참여 기관, 단체 확정	9/1	
	참여 요청 공문 발송	9/1	
전시 체험 행사 및 부대행사	참가신청서 및 지원금 지급청구서 접수	9/8	
	지원금 교부	9/10	
	행사 준비	9/19~22	
	행사장 부스 설치	9/22	
	부스 내부 세팅	9/22	
	부스 철거	9/24	
	전체 행사장 시설물 개수 확정	9/9	
	업체 섭외	~8/26	
	업체 계약	9/2	
	몽골텐트·부대시설물 설치 장소 및 각 부스별 부대시설물 배치 현황 업체 전달	9/1	
PR 부 분	행사장 시설물 설치	9/22	
	시설물 임차비 지급	9/30	

구분	주요 내용	기간 / 일자	비고
단 체 복 수 령	단체복 업체 선정 및 디자인 확정	9/7	
	단체복 수령	9/15	
	단체복 배포	9/17	
	실비보상	교통통제, 주차관리 단체 섭외	~9/3
		의료 및 자원봉사단 섭외	~9/3
		일시사역 섭외	~9/10
		행사보험 가입	~9/9
홍 보	홍보물 인쇄업체 선정	~7/31	
	인쇄 홍보물	1차 홍보물 제작 완료(초대장, 전단, 포스터)	8/24
		1차 홍보물 발송	8/25
		1차 보도자료 배포(지역언론사 등)	8/24
		2차 홍보물 배포(전단, 포스터/부천시 內)	9/24
		축제 자료집 완료	9/19
	목외 홍보물	목외홍보물 업체 선정	~7/31
		거리 홍보물 게첨	8/22
		행사장 목외홍보물 게첨	9/22
		설치 홍보물 철거	9/24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 및 블로그 게재	9/7
	후속작업	행사장 시설물 철거 및 정리	9/24
		참가단체 감사인사 발송	9/25
		실무추진단 평가회의 진행	11/30
		축제 동영상 제작 완료 및 배포	10/31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작 및 발송	12/31

Ⅲ. 프로그램별
시행결과

1. 개막식
2. 폐막식
3. 경연대회
4. 체험 및 부대행사

1. 개막식

1_1. 개 요

- 일 시 : 2016. 9. 23(금) 오전 11:00~12:30
- 장 소 : 부천체육관
- 참가대상 : 시군 28개 참가팀 및 관람객

1_2. 세부 일정

시 간		소요(분)	행 사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0:30	10:40	10	식전공연 무대 세팅 경연팀 입장 준비 개막식 안내방송, 장내 정리 -개 회 식-	사회자 안내멘트
10:40	10:50	10	식전공연	민속예술단 나눔소리
10:50	11:00	10	식전공연	오은령무용단 진도 북춤
11:00	11:05	5	경연팀 입장	참가팀 동시 입장
11:05	11:10	5	내빈소개	사회자
11:10	11:15	5	국민의례	전체
11:15	11:17	2	개회선언	부천문화원장
11:17	11:20	3	대회사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11:20	11:23	3	우승기 전달	2014 대상팀 : 평택문화원
11:23	11:26	3	격려사	이경동 한국문화원연합회장
11:26	11:29	3	축사	염중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1:29	11:32	3	환영사	김만수 부천시장
11:32	11:35	3	축사	강동구 부천시의회 의장
11:35	11:38	3	출연자대표 선서	부천팀 대표(남여 각 1명)
11:38	11:41	3	심사위원 소개	심사위원 5명
11:41	11:46	5	심사기준 발표	심사위원장(당일결정)
11:46	12:01	5	참가팀 자리착석	시연준비
12:01	12:31	30	전대회 최우수상팀 시연	의정부문화원
12:31	~		폐회 및 퇴장	

1_3. 세부 진행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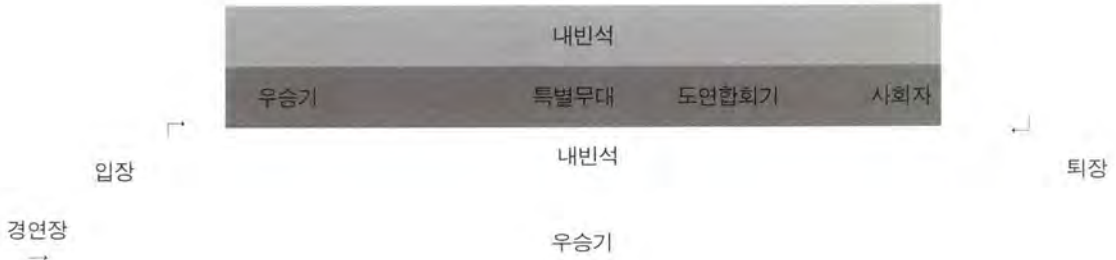
일정	내용
9/1	초청 리스트 정리 및 초청장 발송
9/1	참가팀 배치도 및 입퇴장 동선 확정
9/1	참가팀 대표 사전 연락/ 준비물 공지(지역, 작품명 것발 준비)
9/1	심사위원 확정
9/13	행사장 내부 필요 준비물품 체크(지역별 표시, 지역팻말)
9/13	사회자 멘트 정리

1_4. 개막식 도열

◎ 개막식 입장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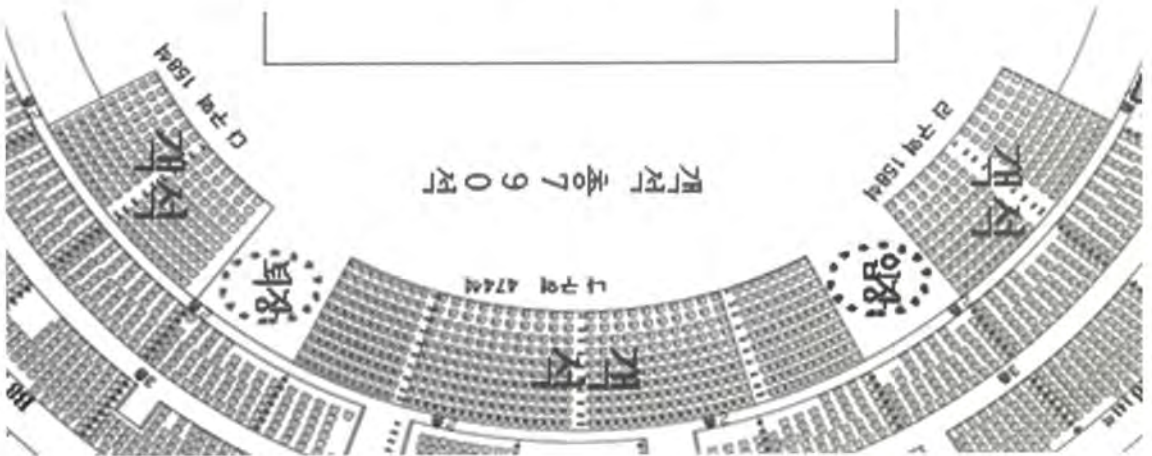
: 각 참가팀은 해당 지역 객석 앞에서 정렬 후 '지역명 피켓 - 문화원기 - 참가단체 또는 작품깃발 등 - 그 외 출연진' 순서로 사회자 멘트에 맞춰서 동시 입장하여 경연장 앞에 지역별로 도열

: 도열 순서



피켓→	가평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양주	양평	여주	연천	오산	용인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문화원기→																												
작품기→																												

↓
나구역 착석
(가평~김포, 남양주~용인, 의정부~화성)



2. 폐막식

2_1. 개 요

- 일 시 : 2016. 9. 24 오후 17:30~18:00
- 장 소 : 부천체육관
- 참가대상 : 시군 28개 참가팀 및 관람객

2_2. 세부일정

시 간		소요(분)	행 사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7:30	17:40	10	폐막식 안내방송 및 장내정리	사회자 안내멘트
17:40	18:10	30	축하공연	부천문화원 챔버오케스트라, 프라임우쿨렐레 앙상블공연
-폐 회 식-				
18:10	18:13	3	폐회사	대회장(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18:13	18:18	5	심사평	심사위원장
18:18	18:38	20	시상식	총 28팀 /2인
18:38	18:40	2	폐회선언	대회추진위원장(부천문화원장)

2_3. 세부 진행 일정

일정	내용
~8/31	상장 의뢰 확인(상패 일련번호)
9/20	상패 전달자(시상자) 참석 유무 확인 완료
9/20	시상식 의전 도우미 선정
9/21	상패 및 우승기 제작 완료
9/22	심사 집계표 양식 작성 완료

3. 경연대회

3_1. 개 요

- 일 시 : 2016. 9. 23 09:00~18:00/총 13개 팀
2016. 9. 24 09:00~17:30/총 15개 팀
- 장 소 : 부천체육관
- 참가대상 : 시군 28개 참가팀 및 관람객

3_2. 경연 일정표

■ 경연 1일 (9월 23일)

시 간		소요(분)	행 사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08:00	08:45	45	경연 진행 준비	참가자 도착 확인, 심사위원 및 사회자 확인 등
08:45	08:50	5	심사위원 소개 및 심사규정발표	
08:30	09:00	30	오산팀 출연 대기	
08:50	09:00	10	경연 시작 안내 멘트	
시 간		소요(분)	지역	작품명
부터	까지			
09:00	09:30	30	오산	오산외미거북진놀이
09:30	10:00	30	안성	남사당 웃다리 풍물
10:00	10:30	30	부천	중리풍물놀이
-개 회 식-				
13:00	13:30	30	수원	수원두레
13:30	14:00	30	평택	파일난장 등대굿놀이
14:00	14:30	30	양주	양주 큰오미 집터다지는소리
14:30	15:00	30	성남	오리뜰 농악
15:00	15:30	30	가평	가평잣 터는 소리
15:30	16:00	30	포천	틀뚝이 동해세우기
16:00	16:30	30	이천	이천거북놀이
16:30	17:00	30	남양주	늘을 기우제
17:00	17:30	30	광명	철산리 두레농악
17:30	18:00	30	구리	웃다리 풍물

■ 경연 2일(9월 24일)

시 간		소요(분)	행 사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08:00	08:50	50	경연 진행 준비	참가자 도착 확인, 심사위원 및 사회자 확인 등
08:50	08:55	5	심사위원 소개 및 심사규정 발표	
08:30	09:00	30	화성팀 출연 대기	
08:50	09:00	10	경연 시작 안내 멘트	
시 간		소요(분)	지역	작품명
부터	까지			
09:00	09:30	30	화성	전통 화성두레 판굿
09:30	10:00	30	하남	웃다리 사물놀이
10:00	10:30	30	동두천	아차노리 수살막이 놀이
10:30	11:00	30	여주	신지리 장채놀이
11:00	11:30	30	파주	파주농악
11:30	12:00	30	과천	과천나무꾼놀이

시 간		소요(분)	지역	작품명
부터	까지			
12:00	13:00	60	-	점심시간
13:00	13:30	30	용인	용인웃다리판굿
13:30	14:00	30	시흥	시흥시 군자봉 설화
14:00	14:30	30	김포	조강치군패놀이
14:30	15:00	30	양평	양평두레농악
15:00	15:30	30	연천	수레울 길놀이
15:30	16:00	30	군포	군포군웅제민속마당
16:00	16:30	30	고양	고양맹인소놀이
16:30	17:00	30	안산	안산와리풍물놀이
17:00	17:30	30	광주	남한산성취고수악대

3_3. 세부 진행 일정

일정	내용
9/22	심사표, 참고자료, 점수 집계표, 각종 계약서 파일 작성
9/22	각 팀별 음향 준비사항 체크 / 입퇴장 동선 정리
9/13	사회자 멘트 준비
9/20	각 팀별 준비사항(마이크, 경연소품 등) 최종 확인(연출자 중심으로)
9/10	심사위원 및 행사진행자 숙소 섭외
9/23	심사위원 사전 미팅(경연 첫날 오전 08시)

3_4. 수상 현황

■ 단체

시상구분	훈격	지역명	출전작품명
대 상	경기도지사	부천	중리풍물놀이
최우수상	경기도의회의장	광명	철산리 두레농악
우 수 상	한국문화원연합회장	평택	파일난장 등대굿놀이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과천	과천나무꾼놀이
공 로 상	부천시장	김포	조강치군패놀이
	부천시장	이천	이천거북놀이
예 술 상	부천시장	화성	전통 화성두레 판굿
		양주	양주 큰오미 집터다지는소리
		군포	군포군웅제민속마당
민 속 상	부천시회의의장	포천	틀뚝이 동해세우기
		안성	남사당 웃다리 풍물
		오산	오산외미거북진놀이
장 려 상 (가노드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가평	가평잣 터는 소리
	"	고양	고양맹인소놀이
	"	광주	남한산성취고수악대
	"	구리	웃다리 풍물

시상구분	훈격	지역명	출전작품명
장려상 (그림부문)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남양주	늘을 기우제
	"	동두천	아차노리 수살막이 놀이
	"	성남	오리뜰 농악
	"	수원	수원두레
	"	시흥	시흥시 군자봉 설화
	"	안산	안산와리풍물놀이
	"	양평	양평두레농악
	"	여주	신지리 장채놀이
	"	연천	수레울 길놀이
	"	용인	용인웃다리판굿
	"	파주	파주농악
소품상	"	하남	웃다리 사물놀이
	"	과천	과천나무꾼놀이

■ 개인

시상구분	훈격	지역명	수상자
지도상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김포	정현재
연기상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양평	김태수

3_5. 출연
종목
소개



오산외미거북진놀이

고종·박재익 | 지도위원·최형욱

유래

오산 외미거북진놀이는 농악과 걸립이 한데 어우러진 집단 놀이로써 옷다리 풍물굿의 전형적인 형태로 진을 움직이는 풍물만이 아니라 예로부터 정초 하룻날부터 대보름날, 추석전후로 하여 마을의 여러 가정에 돌아다니며 가정에 복을 빌어주며 걸립을 하는데 이때는 수수나 짚을 이용하여 거북이와 남생이를 만들어 돌아다니던 놀이이다. 거북이는 무병장수를 의미하는 신성한 동물로 이 거북이에 신앙적인 의미를 두어 각 가정에 복을 빌 뿐만 아니라 액을 막아주고 마을 주민들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놀이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발굴경위

오산 외미거북진놀이는 경기도 남부지역 전역에서 유사한 형태로 발생한 대표적 민중놀이로 모두가 하나 되어 신명의 한판을 벌이는 일의 음악이자 축제의 음악이다. 경기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거북놀이가 성행하였는데 오산에서는 서랑동, 금암동, 금곡리, 내삼미동 등 예로부터 정초 하룻날부터 대보름날, 추석전후로 하여 마을의 각 가정에 거북이와 남생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며 복을 빌었다. 그러나 놀이문화가 점차 사라지면서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금암동과 서랑동에서만 소수로 추석전후로 거북놀이가 행해져 오고 있다. 이에 오산외미걸립농악보존회에서는 잊혀져가는 우리의 놀이 문화를 다시금 복원하기 위하여 마을별 어르신들을 찾아가 얘기를 듣고 연구 및 발굴하여 오산만의 특징을 지닌 거북진놀이를 시연하여 농경사회의 쇠퇴와 사회구조의 변화로 이제는 그 존재가치가 퇴색되고 연행이 요원해진 일과 놀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특징

오산외미거북진놀이는 걸립과 농악이 한데 어우러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거북이 5마리와 남생이 4마리가 노는 모습은 마을

의 안녕과 무병장수를 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농악에 쓰이는 다양한 진을 이용하여 우주만물 오행을 뜻하는 팔괘진, 오방진, 십자진, 가새치기 등 화려한 진법을 이용하여 걸립후의 대동놀이를 한판 노는 신명의 한마당을 만든다.

놀이시기

마을에서 하는 걸립은 주로 정월 초하룻날부터 대보름 전후, 추석 전후에 하며 마을사람이 직접 농악대와 거북이, 남생이를 구성하여, 농악을 치며 집집을 방문하여 돈과 쌀을 거두는 것인데, 기예가 뛰어난 농악수들과 흥겨운 거북이들의 놀이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한데 어우러져 놀았다.

특징

오산외미거북진놀이에 쓰이는 악기로는 팽과리4, 징5, 장구5, 북5명이 있으며 거북놀이를 위한 편성은 거북이, 남생이, 양반, 아낙, 기수, 법고, 무동 등 40~5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행과정

1. 당산제(산신제) → 2. 길놀이(입장) → 3. 우물굿 → 4. 걸립놀이 ① 대문놀이(거북놀이) ② 걸립(음식나누기) ③ 지신밟기(터주굿, 조왕굿) → 5. 대동놀이(쌍원진 놀이 - 오방진 - 십자진 - 가새치기 - 8자진)





안성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남사당 웃다리 풍물

고종, 이상철 | 지도위원, 성광우

유래

안성시 서운면 산중에 자리 잡은 청룡사가 남사당패의 본거지가 되었다. 흥선대원군이 고종 2년(1865)에 경복궁을 증건하고 일꾼들을 위무하고 놀릴 생각으로 전국의 놀이패를 초청해서 연행하게 한 바 있다. 이 때에 농악놀이를 가장 잘 놀았다는 이유로 옥관자를 하사받은 패거리가 곧 안성 바우덕이패 이다. 김기복을 중심으로 1980년 10월에 지금의 안성 남사당농악이 조직되었다.

특징

악기에는 팽과리, 장구, 북, 징, 소고 등이 있고 기에는 두레기와 영기가 있다. 놀이는 길놀이와 판놀이로 이루어진다.

놀이시기

가을(음력 9월)

구성

남사당패에는 여섯 가지 기예능이 있는데 풍물놀이, 버나, 살판, 어름, 덧뵈기, 달미가 있다. 풍물놀이가 농악이고 버나는 접시돌리기 따위 이다. 현재 안성남사당풍물놀이에서는 남사당풍물패만의 본질적인 기예능을 모두 전승하지 못하고, 풍물놀이와 버나만을 전승하고 있다.

진행과정

인사굿으로 시작하여 풍물패가 놀이판에 입장하면 칠채가락을 치고, 외상과 양상을 이어간다. 오방진, 마당놀이를 거쳐 인사굿으로 끝이 난다.



부천

Fantasia
판타지아 부천



중리풍물놀이

고종.김용문 | 지도위원.손영철

유래

중리풍물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이전인 1970년 초까지 옛 중리지역인 장말과 넘말을 중심으로 전승되어온 벅구놀이가 일품이었던 풍물놀이이다.

발굴경위

부천에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서 원주민들도 인근 도시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가 농악도 서서히 퇴색 되었다. 대성농악단 단원으로 활동했던 넘말의 '김용문'씨를 통해 예전에 중리풍물에 대한 틀을 갖추게 되었다.

특성

경기 옷다리풍물로 가락은 느리고 빠른 가락을 고르게 쓰며 쇠 가락의 가림새가 분명하다. 벅구놀이가 다채롭고 어린 무동들이 추는 깨끼춤과 무동놀이가 있다.

놀이시기

정월초에 집집마다 돌면서 펼쳤던 지신밟기와 칠월백중놀이 때 대동굿은 풍년을 기원하는 격식을 갖췄다고 한다.

구성

농기수, 영기수, 새납, 쇠잡이, 징수, 장구잡이, 북수, 소고잡이, 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행과정

풍물놀이의 진행은 열림굿, 인사굿, 돌림벅구, 당산벌림, 오방진, 사통배기, 좌우치기, 양산다드래기, 연풍대, 개인놀이로 진행된다.



유래

수원두레문화의 중심 지점은 대유평 진땀배기 농악에서 시작된다. 즉, 수원화성농악은 진대가 있는 논배미에서 행해진에서 유래되었다. 진땀배기의 위치에 대해서는 現 화서문과 서북공심돈이 서있는 장안공원 앞이라는 설이 있다.

정조대왕이 친히 수원화성 동북각루(방화수류정)에 거둥하시어 낙성연을 열 즈음에서 대유돈에 대풍(大豊)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셨다고 한다. 그리하여 대유돈을 대유평이라 부르게 하셨다.

또한 농민들과 장용외영 군사들은 농군(農軍)이라 하여 농하기에 각종 무술을 연마하고 나발·나각·북 등을 들고 진형 연습을 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전해 내려온 풍물이 용인·남양·안성 등지에서 올라온 뜯식와 전문패 계열의 재능인들과 융합되면서 좀더 세련되게 발전하였다. 그리고 화성재인청이 생기면서 군악의 면모와 행궁지의 위용을 흡수하여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

발굴경위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안봉현(수원시 민족놀이연구소 소장, 2003년·2005년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수원대유평농악으로 참가), 김문항(사)경기도문화가속협회 부회장, 2003년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수원진땀배기농악 기획), 유청자(경기도무형문화재 제34호 안성향당무 전수조교, 대유평농악발굴), 임광식(수원두레농악과 고사소리 정보 제공, 특히 버드내 지역의 농악) 등의 견해를 중심으로 수원두레문화 자료를 발굴하게 되었다.

특징

첫째, 수원두레문화의 대유평농악은 정조시대 수원화성축성 시에 발생했다고 전해지며, 대유평이라는 지명에 대한 근거도 이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현재 수원에서의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낼 수 있었는데, 수원화성축성 시에 만들었던 시설물들(만석각·서둔·만년제 등)이 지금 수원의 지명으로(만석공원·서둔동 등)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유평농악의 유래에 대한 근거는 더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현재 수원두레문화의 대유평농악이 일반 경기웃다리농악과 큰 차이 없이 실현되고 있긴 하지만, 대유평농악의 독특한 진풀이가 세 가지 존재한다.

(1) 입장을 하고 나서 입성놀이에서 깃발들을 양쪽에서 비스듬히 세우고 그 아래로 치배들이 지나가는 일명 입성놀이이다.

(2) 일명 쌍원진을 만드는 과정과 쌍원진의 형태이다. 입성놀이 후 두 줄로 나뉘어 있던 앞치배줄과 뒷치배줄이 한 줄로 원진을 만들 때 앞치배와 뒷치배가 한명씩 번갈아 끼어들어서 원진으로 진행한다.

(3) 두 번째 당산벌림이 끝나고 사통백이로 들어가기 전에 앞치배와 뒷치배가 열십자(+)로 서서 오른쪽 왼쪽으로 대형을 움직인다는 것이다. 열십자(+)진은 대전 웃다리농악과 전남 여천 백암농악에서 보고된 바 있다.

셋째, 현지 조사에서 제시된 것을 토대로 순서와 내용 그리고 가락을 좀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채울 수 있다. 대유평농악의 안내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유평농악의 각 순서에는 위의 쌍원진

수원두레

고종·김현선 | 지도위원·김현수

수원



수원시
SUWON CITY

과 열십자(+)진에서 설명이 되어있는 것처럼 수원화성축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진풀이의 의미와 관련지어져 있기 때문이다.

놀이시기

정월 대보름날 행사로 놀거나, 두레를 마치고 호미씻이를 하면서 하는 경우가 흔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구성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출전시의 구체적 내용

입장→오방진굿과(원천)물굿: 소리굿→사통막이(가세배기)→당산벌림 1: 북·무동·버꾸 개인놀이→열십자진(가세진)→사통막이: 터벌림장단→성밧기(동아줄놀이, 3단치기): 자진모리·동살풀이·새끼꼬기 소리→입성놀이: 미지기·맬들이 8박·좌우치기→두원(쌍원진): 으쌰이 장단·찍찍이 장단·풍년가락·굿거리·안팎원이 바뀜→당산벌림 2: 자진모리·상쇠의 쇠춤·징의 명금무춤·서호북춤·버꾸놀이·무동춤·삼색 오색 열두발 상모놀이·용주사 탑돌이·무동·마무리 원진: 원 좌우치기→네줄배기: 집단 좌우치기→퇴장

가락·자진가락·더드래기·길군악칠채·자진모리·동살풀이·터벌림장단·맬들이 8박·으쌰이 장단·찍찍이 장단·풍년가락·굿거리·비고·돌림벅구·절구벅구 등의 채상놀리와 찍찍이 등을 포함한 경기웃다리 농악의 판굿은 동일하다.

진행과정

위의 진행 과정과 같으며 구성 방식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평택



파일난장 등대굿놀이

고종·김용래 | 지도위원·문상보, 이응규

유래

'난장'이란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市場) 외에 임시로 특별히 열리는 장을 말하는데 평택지역에서는 초파일을 기해 파일난장이 크게 열렸다. '파일난장 등대굿놀이'는 파일난장에서 연등을 높이 세워 난장의 성공을 기원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다양한 연회를 펼치던 놀이이다.

발굴경위

평택지역에서 행해지던 파일난장 등대굿놀이는 연회의 공간이었던 난장이 사라져 현재 등대만을 세우는 축소된 형태로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등대굿놀이를 연회하였던 평택농악 인간문화재 김용래 선생의 고증을 통해 파일난장 등대굿놀이의 원형을 재현하고자 한다.

특징

우리민족은 단오나 백중일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 단오난장이나 백중난장이 많이 열렸다. 평택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초파일을 기해 난장이 열렸는데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었으며 특히 진위에서 열리는 파일난장은 인근에서 최대였다고 한다. 특히



긴 장대에 연등을 달아 높이 올리는 등대굿놀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적인 모습이다.

놀이시기

'파일난장 등대굿놀이'의 시기는 음력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열린 난장에서 연회한다.

구성

기수5, 장대 잡이1, 연등줄잡이 4, 태평소2, 쇠2(고사소리꾼 포함), 징2, 장구 2, 북2, 법고6, 무동3, 사미2, 엽장수1, 소금장수1, 떡장수1

진행과정

보부상 등장→등대 세우기→낭 받기→등대굿→고사굿→판굿





양주



양주 큰오미 집터다지는소리

고종, 김현선 | 지도위원, 박정화

유래

큰오미 지경단기소리는 백석읍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남면 경신리 등지에 널리 전승되고 유래되는 것을 낱줄로 삼고 고연행자의 창조적 전승과정을 씨줄로 삼아서 이 소리를 찾아 정리하게 되었다. 유래 내력은 아주 오래여서 집짓는 터전을 닦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으니 그 내력이 매우 오래이고 역사적으로 유구한 전통이 있음을 알겠다. 이 소리를 온전하게 전승하고 있는 가창자로 가령 김환익, 허영이, 최장환, 황상복 등을 꼽을 수 있겠다.

발굴경위

전통의 소멸은 전통의 총체적인 문제임을 절감하게 되었다. 전통가옥구조가 사라지니 전통의 소리 역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을 직시하고 소리를 온당하게 이어가기 위한 항목을 구성하던 중에 지경단기 소리를 발굴하게 되었다. 고연희자들의 기억을 더듬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이 소리의 내력을 굳건하게 인식하였다. 특히 집터를 삶의 안락으로 고취하고, 자신의 집과 산천, 우주만물까지 연관지으면서 소리를 통해서 사람을 모으고, 소리를 통해서 신명을 집약하는 지혜를 찾아서 현재의 빈약한 우리의 정신세계를 고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 그 점에서 이 지경단기 소리를 발견하고 발굴하게 되었다.

특징

큰오미 지경단기 소리는 크게 보면 가래질과 지경단기로 갈라진다. 소리를 하기 앞서서 줄을 꼬고 장차 이 행위를 하면서 먹게 될 수수부룩을 치는 과정이 이어지고, 동시에 가래질과 지경단기 행위가 이어지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집터를 다지면서 고사소리까지 겹치게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된다. 소리의 결 자체가 경기도 북부의 고유한 소리가 되므로 이 점에 있어서 소리의 전통과 의미를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놀이시기

놀이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 집을 짓는 것이 세시절기와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 놀이는 비정기적으로 행해진다. 그렇지만 옛날 집이 모두 섰듯이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소리를 하고 이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공동의 노동을 하던 것을 본다면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

두레농악, 가래질소리, 고사소리, 집터다지는소리

진행과정

입장 - 집터(가로 10m 세로 6m)를 사각으로 만들고 그안에서 가래질, 집터다지는 동작들이 모두 이루어짐) - 집터 좌측에 아낙들이 수수부룩준비할 간이부엌 만들 - 소리꾼 무대좌측이나 우측에 풍물팀과 함께 10여명이 고정적으로 경연 - 끝나면 좌측이나 우측으로 퇴장한다.



성남

성남
시민이 행복한



오리돌 농악

고종, 이희병 | 지도위원, 강승호

유래

과거 광주군 낙생면 구미리(九美里)에 위치한 오리돌은 탄천을 중심으로 상당히 넓은 평야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3년 7월 구미동(九美洞)이라 칭하여 성남시에 편입되었고, 1989년 분당 신도시의 개발 계획에 따라 오리돌은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과거부터 넓은 오리돌에서 대대로 이어지던 두레농악의 풍물소리는 사라지고, 두레농악을 놀던 반농반예인(半農半藝人)의 두레농악을 놀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당시 두레농악을 놀던 연희자들 중 장양천, 김근배, 이종훈 등은 성남시를 떠나지 않고 고향을 찾아 친목회를 조직하고 매달 구미동 노인회관에 모이고 있다. 또한 당시 12발 상모를 돌리고, 소리에도 능했던 김현득은 서울로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면서 이곳과의 인연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발굴경위

오리돌 두레농악의 연희자들은 현재 상당히 연로한 나이로 복원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전통이 도시화라는 미명아래 사라질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이를 안타까워하던 원로연희자와 성남문화원, 사)한국농악보존협회 성남지회가 마을주민들과 함께 발굴 및 복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수십 회에 걸친 탐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2007년 8월 문화관광부 '전통예술복원 및 재현사업'으로 선정되어 그 복원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예전의 신명나고 화려했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특징

- 꽃을 빨간색(앵두색)으로 했고 쇠는 삼색띠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댔다.
- 병거지 뒷면의 금속장식이 있었다.
- 피조리가 조바위를 썼다.
- 치배구성의 특징- 치배 중 제금이 있었다.
- 장단과 진의 특징-굿거리장단(짚자패가락 - 육띠기, 삼째이)을 많이 썼다.
- 사채장단의 사용(입장, 이동시)
- 쇠잡이와 버꾸를 제외한 치배들은 고깔을 썼다.
- 열두발상모에 피지는 빨강색과 노랑색 두줄을 쓰기도 했다.

- 무동의 허리에 오방색의 띠를 묶어 버꾸잡이들과 함께 돌려 풍년가를 불렀다.

놀이시기

농사의 주요 공동 노동은 대표적으로 모내기, 김매기, 추수 등인데 이들의 생활은 공동 노동뿐만 아니라 공동 회식, 공동 가무가 특색이다. 이른바 민속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노래하고 춤추는 두레 생활의 전통에서 발달한 것이다.

또한 명절은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통로다. 평소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명절날을 맞아 재집결한다. 그러므로 설, 정월대보름, 단오, 추석 등이 되면 농악으로 판을 벌인다. 또한 두레단위의 잔치나 회합시에도 수시로 놀이를 하였다.

구성

- 쇠3, 징2, 장구6, 북6, 호적, 버꾸8, 피조리8, 양반, 대포수, 중, 각시, 농기, 농악단기, 용기, 영기2로 총인원 43명으로 구성
- 예전에는 보통 20여명의 농악대를 구성하여 연희하였다.
- 길가락을 원진을 했고 삼채는 "벌놀이(달팽이진)"라는 것을 했다.
- 버꾸놀이는 자존가락을 쳤으며, 대체로 6~8명의 인원으로 진행되었다.
- 육띠기와 삼째이는 따로 구성되어 놀았으며 제금은 잡색과 같은 정식 치배가 아니었다. 제금은 북과 같이 쳤다.

진행과정

- 입장 사채(대열을 갖추어 원진으로 입장)→인사→잣은가락→길가락→육채→삼채(원진-당산벌림)→자존가락(까치버꾸)→삼채, 자존가락(버꾸놀이)→삼채(십자/대자진, 달맞이진)→떡썩이기(원진, 밀버꾸)→당산벌림(농사풀이, 개인놀이)→열두발상모→무동→삼채(벌놀이)→자존가락





가평

희망과행복이 있는
미래 창조도시

가평잣 터는 소리

고종, 김만중 | 지도위원, 정택수

유래

잣나무는 '잣'과 '나무'가 합쳐진 말이다. 추사 김정희가 그린 '세한도(歲寒圖)'속에 세 그루의 잣나무가 있고, 고려 현종 때 송나라에서 들어 온 의약서적 '성해방'에도 가평 잣에 대해 극찬하였으며, 또한 조선왕조실록 중 세종장헌대왕실록 지리지 148권 양주도호부에 가평군의 토산품을 가평 잣이라 기록되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발굴경위

가평군 전체 산림 중 잣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이 30%에 이르며, 국내 잣 생산량의 60%를 감당하고 있다. 300여 가구가 잣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워낙 위험하여 잣나무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잣 수확은 오로지 사람이 약 15~25m 높이 잣나무에 올라가 대나무를 이용, 잣송이를 툰 다음 잣송이를 잣방망이로 두드려 피잣으로 만들고, 그 피잣을 다시 백잣으로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경쾌하게 나는 소리를 '잣 터는 소리'라 부르고 있기에 그 소리를 전통악기와 현대악기를 이용, 예술로 승화시켜 '가평잣 터는 소리'라는 주제로 발굴하게 되었다.

특징

바닥에 멍석을 깔고 그 위에서 나무로 만든 잣방망이로 잣송이를 두들겨 피잣을 만드는데 그 때 나는 소리와 잣나무에 올라가 잣송이를 툰 때 나는 소리가 마치 북을 칠 때 나는 소리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놀이시기

08월~11월 : 추석 명절 전후와 입동 시기

구성

- 잣 방망이 두들기는 소리 - 모듬북의 다이내믹한 연주 소리
- 대나무로 잣송이 터는 소리 - 대북과 사물북 소리



- 청설모와 다람쥐 잣 까먹는 소리 - 태평소와 나팔 소리 등 이렇듯 자연을 소재로 한 주제로 다양한 악기들이 조화롭게 연주함으로써 보는 이와 연주하는 이가 '가평잣 터는 소리'로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

진행과정

큰북, 작은북, 모듬북이 시작을 알리고 특이한 소리가 모여, 조화를 이루면서 점차 분위기를 고조 시킨다. 한 가지씩 다른 악기로 연주가 들어오면서 각자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개성을 표현한다. 이때, 연주하는 이의 즉흥적인 연주가 돋보이고, 마지막은 아리랑을 함께 부르면서 대동의 하나가 된다.

포천

무궁무진 포천



틀뭇이 동해세우기

고종,배인수 | 지도위원,박민준

유래

포천 틀뭇이 동해세우기는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천주산말에 350여 년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틀뭇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고유의 전통 민속임.

음력대보름 다음날인 열엿새 귀신 날에 동해(높이10m,둘레4m)를 세우고 마을의 귀신을 쫓고 재앙을 몰아내며 항상 평안한 가운데 마을주민모두가 만사형통하기를 기원하는 민속의식으로 지속되고 있음.

지역주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의 되어 햇불 놀이에 필요한 수수깡, 조짚, 벚짚 등을 거두어 동해를 세우고 햇불을 밝혀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달님을 향하여 소원성취를 빌었으며 아울러 옛날에는 떡과 과실을 차려놓고 개를 잡아 정월 열이렛날에 떡과 과실을 대동제사인 구제사를 지냈다는 유래도 있음.

발굴경위

틀뭇이 마을에 전래되어 내려온 민속놀이를 계승 발전하고자 매년 청년회를 중심으로 한해도 거르지 않고 재현하고 있는 마을의 기원제임

특징

포천에서 유일한 동해 세우기는 천주산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달님을 향하여 소원성취와 안녕을 기원하는 민속의식임 특히 출향인사와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있음.

놀이시기

○ 음력 정월 열엿새

구성

▷입장

▷길놀이(벚짚 수거) ▷가가호호 동해 재료 모으기 ▷세우기 ▷기원제

▷불붙이고 소원빌기 ▷다북놀이 ▷불꽃놀이 ▷뒷풀이

진행과정

▷입장

▷길놀이(벚짚 수거) ▷가가호호 동해 재료 모으기 ▷세우기 ▷기원제 ▷불붙이고 소원빌기

▷다북놀이 ▷불꽃놀이 ▷뒷풀이





이천

이천
이 천 시

유래

신라 문무왕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신라의 공주가 병이 들었는데 아무도 고치는 방법을 몰라 임금의 근심이 깊었다. 그러자 신라의 명망이 높은 고승인 영추대사가 임금에게 나아가 한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다. '공주와 나이가 같은 15세 소년들로 하여금 수수잎으로 거북의 탈을 만들어 쓰고 유희를 하며 집 안팎을 깨끗이 쓸면 공주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임금은 영추대사가 알려준 방법을 시행하였고, 이내 공주의 병이 씻은 듯 나았다. 이후 거북놀이는 장수와 축원의 의미를 담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발굴경위

거북놀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일본인인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의 향토오락』에 처음 등장한다. 무라야마 지준은 이 책에서 이천의 마장면에서 조사된 거북놀이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과정을 거치며 거북놀이는 소실될 위기에 처해있다가 1972년, 당시 대월국민학교의 교감이었던 김중린 선생의 노력으로 복원되었다. 민속학자 심우성 선생과 김중린 교감은 마을사람들의 고증을 통해 이천거북놀이를 원형대로 되살려 재현하였다. 이후 1976년 학술세미나를 통해 학문적토대를 갖추고 1978년 이천문화원장을 회장으로 하는 이천군거북놀이보존회가 창립하여 같은해 10월에 개최된 제1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매년 10월8일 군민의 날(5회~12회)에 대월초등학교 학생이 시연을 해왔으며 민속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경기도무형문화재 50호로 지정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징

전체적인 놀이방식은 지신밟기와 비슷하나 장수의 상징인 거북이와 함께 하여 농악대 중심의 지신밟기보다 해학적인 면이 강조되고 마을사람의 참여가 높다. 정월에 하는 지신밟기와 다르게 8월 추석에 주로 행해졌으며 주로 아이들에 의해 전승되었다는 점도 이천거북놀이의 특징이다.

놀이시기

음력 8월 15일 (추석)

구성

거북이, 남생이, 마을사람, 기수, 질라아비, 풍물놀이

진행과정

길놀이-우물굿-마을판굿-문굿-터주굿-조왕굿-대청굿-미당판굿

이천거북놀이

고종,심덕구 | 지도위원,박연하



남양주

캐한도시
남양주



“늘을 기우제”

고종.정인수 | 지도위원.한에서



유래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한 “늘” 지역으로 큰 골짜기 중 가장 깊은 소(沼)와 바로 위 큰 바위 주변을 말하며, 좌·우로 갈라진 바위 사이가 큰 가마솥을 엮을 만큼 크게 생겼다. 하여 유래한 지명입니다 가뭄이 들 때 마다 기우제를 올리는 곳으로 동네 부녀자들이 키와 물동이 바가지 등으로 물을 끼얹으면 키가 다 마르기전에 비가 오곤 했다고 전해져온다.

발굴경위

선조들의 열과 땀이 뻗 옛 지명들을 보전하고 전승시키는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며 향토를 아끼는 첫 시작으로. 조사된 유래 자료가 후일 지역의 젊은이들을 통하여 전승되고 내가 사는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 정주의식이 심어지는 계기로 전통문화 보존하고 전승하는 토대를 마련함이다.

특징

각 마을마다 공동의 재산이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마을회관, 창고, 당집 등이 있으며 또 한 제기, 혼례용구, 상여와 상여도, 혼례가마등 일상생활 중에 대부분이 상호부조로 서로 품앗이나 놀이집단을 형성하는 기초단위로 마을내의 모든 인간관계는 혈연, 이웃, 친구, 계원 등으로 얽히게 되어 마을 의식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특징임.

놀이시기

택지개발 중 구석기 유적이 발견 되면서 우리 동네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기는 크게 앞서고 있지만 소규모 마을의 형태를 이루며 살기 시작한 시기는 약500여 년 전으로 보인다.

구성

풍물, 제주, 축관, 제물, 집사, 부녀자 등 총 44명

진행과정

- 제 1 장 : 입장 및 기우제 독축(8분)
- 제 2 장 : 가마솥등지 바위 물세례(4분)
- 제 3 장 : 제물 물세례(4분)
- 제 4 장 : 바가지 깨뜨리기(4분)



광명



빛을 품은

광명시

철산리 두레농악

고종·이영희 | 지도위원·임응수

유래

450여년 전부터 광명시 소하리 철산리 학운동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두레농악은 농사철에 주로 행하여졌다.

1년 중 정월대보름, 단오, 칠월칠석 백중에 많이 치고 놀았던 두레농악은 추석이나 설에는 집집마다 지신을 밝아주고 가가호호, 무병장수를 빌어주고 마을의 안녕과国泰民安을 기원하였다. 두레농악은 들에 나갈 때 치던 길놀이(장원진)와 논에서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소리와 춤을 추었으며 심신을 달래며 일체감을 조성하였다.

발굴경위

광명시는 경기 서남부에 위치한 시민 35만의 도시로 1981년 시 개칭이후 91년부터 전통민속에 대하여 발굴하기 시작했다.

91년, 광명농악 93년 구름산도당놀이, 98년 아방리줄다리기, 2002년 아방리농요, 2011년 철산리디딜방아 액막이놀이 등을 발굴하였으며 2016년 철산리 두레농악을 발굴하게 되었다.

특징

철산리 두레농악의 특징은 두레와 농악이 어우러져 노동의 지친심신을 신명으로 이끌어 일에 능률을 올리며 나눔과 소통으로 복지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놀이시기

연중 정월대보름을 기점으로 10월까지 주로 농사철에 행하여 졌다.

구성

농부, 농악대, 마을사람들, 소리꾼, 깃발 등으로 일하고 소리하는 놀이형식이다.

진행과정

들나가기- 모찌고 모심기- 논매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구리



웃다리 사물놀이

고종·박명섭 | 지도위원·윤혜정

유래

웃다리 사물놀이는 경기·충청권에서 행해졌던 웃다리 농악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웃다리 농악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가락의 종류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에 비해 번주가락이 다양하며, 느린가락과 빠른 가락을 고르게 쓰는 쇠가락이 분명하고 암, 수 가락의 변화를 구사하는 짝쇠놀이가 발달했다. 이러한 웃다리 농악의 특징을 그대로 살려 웃다리 사물놀이를 구성하였다.

발굴경위

6.25 전쟁이후 풍물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삶과 함께한 풍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점차 사라지는 풍물을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발굴하게 되었다.

특징

웃다리 풍물은 경기, 충청 지역의 풍물을 말한다. 이에 반해, 아랫다리 풍물은 호남과 영남 풍물을 가리킨다. 타 지역에 비해 북이 약하고 팽과리 가락이 무척 다채롭다. 특히 상쇠와 부쇠가 서로 가락을 주고받는 짝쇠(짝드름)이 유명하여 원래 짝드름은 호남 좌도 풍물에서 유래했다. 다시 말해 호남 좌도 풍물의 짝드름은 김덕수 사물놀이패에서 웃다리 풍물가락에 넣어 새롭게 선보인 것이다. 웃다리 사물놀이는 풍물굿 무동 채상돌기등을 제외하고 가락을 위주로 4가지의 악기(쇠, 장구, 북, 징)만으로 연주하는 것이다.

놀이시기

동네별로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농사꾼들이 쉴 때 주로 남사당패 등을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6.25 전쟁이후로는 거의 사라졌다.

구성

웃다리 사물놀이의 구성은 점고, 일체, 짹짹이굿, 길가락 칠채, 육채, 마당삼채, 이채(짝쇠)로 이루어져 있다.



진행과정

점고로 힘차게 시작하여 분위기를 제압한 후 일체 후 궁근 원을 짜서 빙빙도는 짹짹이굿, 길가락 칠채로 다시 조용히 연주하여 긴장감을 조성하며 팽과리의 지휘에 따라 고조되어 연주 한 후 다시 육채가락을 시작하고 쇠악기와 가축악기와와 주고받기가 끝난 후 빠른 마당 삼채 가락을 하여 분위기를 압도한다. 마지막으로 웃다리 사물놀이의 대표적인 짝쇠가락을 하여 흥을 돋우고 신나게 연주를 한다.





화성



The Way to Better Living
길이 열리는 화성시

전통 화성두레 판굿

고충.안병선 | 지도위원.심명숙

유래

화성시 지역은 예로부터 일부 해안지역을 제외하고는 벼농사를 주축으로 하는 농업이 생활의 근간이었다. 이 농업노동에 있어서 마을 공동작업인 두레가 서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었고 주로 모내기나 논매기 때였다.

화성시 지역에서 '농악'이라는 명칭보다는 '두레' 혹은 '두레굿'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 이는 두레조직이 활성화 되어있고 이 두레조직을 기반으로 공동작업이 필요한 집터를 다지는 지경다지기 소리, 모내기 작업시 모내는 소리 논매는 작업시 논매소리, 작업 이동간의 풍물, 마을 대동굿 등이 행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발굴경위

이동간의 풍물은 상모 돌리기, 혹은 개인놀이 등이 배제된 악기연주로만 이루어지며 '길놀이' 혹은 '마당놀이'라고 불린다. 화성두레 판굿은 '마을 대동굿'의 공동체적 놀이판의 음악적, 진법적 구성과 기예를 복원해 놓은 것으로 각 마을 두레패가 가진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놀이판을 일컫는 것이다.

화성지역 권역별로 두레패마다 가락과 진법, 그리고 법고 놀음과 개인놀이 등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 경기도 지역의 가락의 특징과 진법의 구성을 따르고 있어서 경기권역의 일부로서 편입될 수 있는 기본적인 가락과 진법구성, 개인놀이 등을 발굴하는 동시에 화성시 지역에서 만 볼 수 있는 토박이 가락과 독특한 진법 등도 발굴하여 전체 풍물굿을 구성하였다.

특징

화성두레 판굿의 진법구성은 '돌림법고', '오방감기'(명석말이), '원 좌우치기' 등의 원형진법과 '당산벌림', '사통백이', '합동좌우치기' 등의 사각진법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진법 구성 상 농사진과 군사진을 모두 사용하고 있으나 당산벌림②에서 보이는 법고 단체놀음 중에서 군사진으로 추정되는 '훈련진'이 특징적이다.

개인놀이로는 법고놀이, 버나놀이, 열두발 상모놀이, 무동놀이 등 경기지역 뒷놀음의 기본적 형태를 따른다.

기존의 두레굿 중 복원이 상당히 진행된 풍물굿의 성과에 '두레'조직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공동노동시 불리워졌던 지경다지기 소리, 노작요 등의 소리굿 부분을 간단한 재현을 통해 두레굿에 포함시킴으로써 마을공동체의 일터와 삶의 모습을 '화성두레굿'안에 담기도 한다.

놀이시기

화성의 두레굿 중 대규모의 판굿은 주로 한해의 농사를 마칠 때 쯤 호미를 씻어 걸어두고, 마을 사람들과 두레패가 어울려 제를 지내고 하루를 음주가무로 즐기는 일종의 마을 축제인 '호미걸이'나 '두레싸움'등의 때에 행해졌을 것으로 여겨지며 두레조직이 해체된 이후, 정월대보름의 지신밟기, 각 마을의 용줄다리기 등의 세시와 민속행사에 때에 주로 보여진다.



하남



웃다리 사물놀이

고종.김종규 | 지도위원.신정용

유래

웃다리 사물가락은 사물놀이로 연주된 최초의 가락으로 경기, 충청지역에서 연희되던 풍물가락을 앉은반 형태로 편곡하여 연주되는 사물가락 이다.

특징

웃다리 가락은 특히 쇠가락이 섬세하고 암쇠와 숫쇠가 주고 받은 짝쇠가락이 일품이다. 여기에 동살풀이 가락을 가미하여 더욱더 신명나고 흥겨운 가락으로 짜여있다.

놀이시기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농사가 시작되는 봄부터 추수가 이루어지

는 가을까지 농민들의 흥을 돋우기 위한 풍물놀이로 이루어지던 민속놀이 가락

구성

일반 농악의 풍물놀이와 달리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앉은 반 사물가락 연주

진행과정

고등학생 사물놀이 팀이 앉은 반 구성으로 월산가의 가락을 시작으로 훈령수, 점고, 짝찌기 가락, 칠채, 육채, 마당삼채, 짝쇠 가락을 끝으로 마무리



아차노리 수살막이 놀이

고종.정경철 | 지도위원.김홍래

유래

유사 이래로 인간과 신이 다정하게 반려를 이룬 곳이 마을이다. 옛사람들에게 마을은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이자 우주의 중심으로 받아 들여졌다. 그래서 마을은 언제나 자신들의 삶을 보호하는 질서와 조화의 세계였고 마을 바깥은 불안과 혼돈의 상태로 늘상 부조화의 세계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므로 마을이 신들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고 신앙처럼 믿고 따르게 된다. 여기에 수살막이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다. 숫대를 세워 인간사의 불행과 자연 재앙으로부터 보호 받고자 하는 것이다.

발굴경위

아차노리 수살막이를 현재에 재현함으로써 숫대문화의 참의미를 세겨 후세에도 마을 공동체로 하여금 안녕과 평온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특징

일반적인 동제는 마을 수호신 격인 보호수나 서당등을 통해 제를 모시게 되나 아차노리 수살막이는 특이하게도 숫대를 세워 제를 모시는 것이 특징이다.

놀이시기

음력 시월 상달 모든 마을주민들이 수살막이를 한다.

구성

일반적인 동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제사를 지내는 형태로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첨작례, 축관, 집례자, 집사, 마을주민등으로 구성된다.

진행과정

낭걸립패 길놀이- 마을순회- 수살막이 동제- 대동놀이

동두천

Do Dream
동두천



여주

평범한 여주, 새시대를 열겠습니다



신지리 “장채놀이”

고종, 조성문 | 지도위원, 전기중

유래

신지리에는 남쪽에 위치한 '음달마을'과 북쪽에 위치한 '양달마을'이 있다. 장채놀이는 '장치기'라고도 하는데 오래 전부터 나무꾼이나 농부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는 오늘날의 필드 하카와 비슷한 놀이이다. '장'을 하키 채와 비슷하게 만든 '장채'로 쳐서 자기 마을 쪽으로 끌고 오는 경기로 장을 자기네 마을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은 복을 끌고 간다는 의미라고 한다.

발굴경위

여주는 타 지역에 비해 다양하고 우수한 전통 민속놀이가 많으나 인구의 고령화와 농촌 공동체의 붕괴로 말미암아 전통의 계승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지역 청소년들이 문화의 계승자로서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특징

장채놀이 흥 위주의 놀이이다. 예부터 승부를 떠나 체력단련과 마을 주민의 단합을 위해서 하던 놀이로 간단한 기구를 가지고 행해지는 장채놀이는 축구공 만하게 만든 '장'을 하키 채와 비슷하게 만든 '장채'로 쳐서 자기 마을 쪽으로 끌고 오는 경기로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를 발굴하고 재연함에 있어 청소년들에게 권장해 볼 만한 놀이이다.

놀이시기

신지리는 마을 단위로 할 때는 음력 정초이지만, 이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즐겨왔다고 한다. “춘하추동의 구별 없이 일 년”을 통해서 즐기는 체력단련을 위한 민속놀이인 것으로 나타난다.

구성

풍물, 장채놀이

진행과정

1. 풍물합곡
2. 음지선수, 양지선수 입장
3. 장채놀이
4. 대동합곡





파주

PAJU

파주시

파주 농악

고증,조영현 | 지도위원,김명기

유래

파주 교하의 지역은 이 지역에 세거하고 있는 파평 윤씨가 이조 세조대왕 이후 국군 부원군 세 분(파평 윤심, 파원 윤여필, 파산 윤지임), 공신부원군 세 분(파천 윤사흔, 파릉 윤보서원, 윤원형)이 성장한 곳이며, 또 한 그의 지손들이 높은 벼슬길에 올라 그 세도가 하늘에 닿아 당시 그 기세가 날로 왕성 하여 기와집들이 즐비하게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 기세울 지역은 파평 윤씨의 집성촌으로 불리울 정도로 조선 초에 그 가목수가 1000여 가구 이상이었다. 현재 생존해 계시는 파평 윤씨 정종공파 36대손 윤시덕(1931년생, 고증당시 만80세)씨에 의하면, 당시 기세울(현 와동리)의 안말(내촌)은 파평 윤씨 집성촌(훈씨는 3가구뿐 99%가 윤씨가문)을 이룰 정도로 파평 윤씨들이 많이 거주하였다 한다. 고려 당시 신의주에서부터 부산(3천리=약1200km)까지 10리(약4km)에 한그루씩 은행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이 중 파주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은행나무(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713번지 위치)에서부터 현 310번 도로가 있는 곳까지 기와집이 연속으로 있어 비가 오는 날엔 그 처마 밑으로만 걸어가도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기와집을 가진 파평윤씨 양반들의 기와집이 장관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개성 상인들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상인들의 왕래가 많았으며, 이 상인들 중에는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진 재주꾼들도 많았다고 한다.

발굴경위

파주의 교하지역은 전통적인 농촌지역으로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합수지점으로 넓은 평야와 곡창지대가 분포하는 지역으로 예로부터 두레가 성행했던 지역이다. 특히 파주 교하의 기세울 지역은 파평 윤씨 집성촌을 이루었던 지역으로 마을의 화합과 한 해 농사의 풍년, 마을사람들의 안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기 위하여 농악놀이가 행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6.25전쟁(1950년)을 기점으로 기세울 지역을 비롯한 교하지역의 농악이 그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으며, 최근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그나마 남아있던 사진자료나 문서 등 역사적 근거를 또한 모두 훼손된 상태이다.

이에 파주농악보존회의 회장인 조영현과 현재 (사)한국국악협회 농악분과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정철기는 파주 기세울 농악을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역사적 근거에 의해 파주 기세울 농악을 발굴하게 되었다. 파주 기세울 농악은 제15회와 제17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였던 문산 제일고등학교의 파주농악 작품을 바탕으로 파평 윤씨 정종공파 36대손인 윤시덕(1931년생, 만80세)씨를 비롯하여 김명기, 권대현, 박성걸의 고증을 받아 지도위원인 정철기와 함께 파주 기세울 농악의 역사적 근거와 파주지역의 농악에서만 행하여 지는 가락과 진법에 대하여 발굴 복원하게 되었다.



과천



과천나무꾼놀이

고종·김선풍 · 오은명 |

지도위원·박용욱 · 이복술 · 장상오 · 조길자 · 김유리 · 서지영 · 노명욱

유래

나무를 매개로 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각기 과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놀이이다. 나무꾼들은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르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노래를 불렀고 나뭇잎을 피리<풀피리>로 삼아 불기도 하였고, 나무를 하고 내려오다가 친구끼리 남은 흥과 정력을 써가며 지계를 이용한 나무꾼 놀이로 개발하게 되었으니 과천고유의 소리와 지계놀이가 그것이다.



발굴경위

과천지역은 논농사보다는 산과 관련된 다른 부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땔나무를 하여 서울에파는 것은 중요한 생업의 하나였다. 다른 지역의 민속놀이가생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듯이 과천지역의 중요한 생업이 땔나무를파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과 관련된 민속놀이가 발달하게 되었다.

특징

과천 나무꾼놀이는 과천 고유의 소리와 놀이가 결합된 이 지역만의 독특한 민속놀이로 할 수 있다. 나무꾼들 사이에 전승되고 있는 놀이들은 다양한 바, 구체적인 민속놀이 명칭을 들면 <지계꼬리밟기>, <지계작대기고누기>, <장치기>, <지계작대기걸음마>, <지계다리밟기>, <지계상여놀이>, <지계 탐쌍기놀이>, <지계무동놀이>등이 있다.

놀이시기

과천 나무꾼놀이는 단순히 나무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나무와 연관된 다양한 방식의 삶의 방편이나 놀이들을 총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진 세시놀이가 아닌 봄부터 겨울철이란 시간 및 산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놀이이다.

구성

나무꾼 40명, 풍물 10명

진행과정

① 대기 - ② 영기(관악산 기, 청계산기) - ③ 관악산마을 기 (가루개, 찬우물, 안골, 용마골) ④- 관악산나무꾼 - ⑤ 팽파리- ⑥ 징 - ⑦장구 - ⑧북-⑨ 마을아낙 - ⑩ 마을어린이 - ⑪ 청계산마을기 (막계, 팽맹이, 돌무개, 사기막골) - ⑫ 청계산 나무꾼



유래

농악을 치는 굿패들은 당산굿과 같은 마을굿을 농악으로 치는데, 서낭당에서 당굿을 칠 때는 당 앞에서 열을 지어 이리저리 판을 벌이는 놀음이나, 집집마다 돌면서 고사를 지내는 마당밧이와 걸립굿을 칠 때의 마당놀음을 확대하여 걸립패들이 낮에 걸립을 하고, 밤에 구경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농악놀이로 판놀음을 벌이는 데에서 유래했다.

발굴경위

풍물놀이는 다섯 악기인 팽과리, 징, 장구, 북을 치며 소고를 들고 다양한 춤을 추는 기능과 극적 짜임새를 갖는 잡색놀이 등을 포함하는 공동체적인 놀이형태를 말한다.

풍물놀이는 노래, 춤, 극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종합 예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풍물놀이는 조상들의 사시사철의 생활모습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우리민족은 농경민족으로서 항상 농사일이 시작하고 마무리 되가는 과정에서 풍년을 기원하고 풍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풍물판을 벌이곤 했다. 정월 대보름의 지신밧기 농사철의 두레풍장, 단오나 추석 때 풍농을 기원하며 울리던 대동놀이 등을 보면 풍물은 우리 조상의 생활과 항상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풍물놀이 지도를 통하여 음악에 맞추어 움직이고 그 느낌을 몸 전체로 표현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락과 장단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악과 춤이 결합된 우리 음악 교육을 통하여 우리 음악이 주는 신명을 몸소 느끼고 흥미와 친근감을 갖게 된다.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서 항상 같이했고 우리 민족의 정서가 녹아 있는 풍물을 익힌다면 우리 음악을 이해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서를 습득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징

판굿은 진법놀이와 개인놀이로 이루어져 있다. 상모를 돌리며 여러 가지 대형을 연출하면서 각 잽이들이 개인 기량을 발휘하게 된다.

놀이시기

연중 즐길 수 있는 유취문화이다. 봄에는 대보름굿, 길굿, 고사굿, 걸립굿, 여름이면 두레 및 품앗이를 위해 공동가무를 즐겼고 겨울에는 수확을 맞이하여 겨울에는 한해를 보내며 풍물을 즐겼다.

구성

팽과리, 징, 장구, 북, 태평소로 이루어져 있다.

진행과정

접고-취모리-자진모리-월산가-덩덕궁-사통백이-당산놀이-개인놀이-인사굿





시흥시 군자봉 설화 (부제 : 군자봉을 석자 석치 낮춰라)

고종, 박일엽 | 지도위원, 조영선

유래

옛날 군자봉 아래에 유씨가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14명이나 되고, 아들들이 모두 벼슬에 올라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지닌 집안이었다. 어느 날 류씨 영감은 여종이 잘못하자 매질하였는데 그만 그 종이 죽어버렸다. 종의 아들이 16살이었는데 이를 보고는 곧 집을 나가 버렸다. 걸식하며 다니다가 금강산 어느 절에 들어가 심부름을 하다가 주지스님이 예쁘게 보고 지술을 배워 지관이 되었다. 지관이 된 후 청년은 유씨 집안의 복수를 위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옛날 그 집으로 찾아가 유씨네 조상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군자봉 산봉우리가 석자 세치를 낮게하면 더욱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며 계락을 펼친다. 그 후 유씨영감은 군자봉 봉우리를 석자 세치를 깎아냈고 유씨 집안은 권세가 차츰 기울기 시작했다는 시흥시 설화가 전해진다.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군지』상, 하, 1988 참조

발굴경위

1988년故 이한기 시흥시향토사료실 전문위원이 시흥군지편찬 조사를 하면서 당시 군자봉에 얹힌 설화를 취합하여 『시흥군지』에 수록했다.

특징

군자봉 설화처럼 현재도 군자봉은 봉우리가 석자 세치정도 낮아진 것처럼 보인다. 또한 군자봉에서 바로 내려다보이는 현재 시흥시 향토유적 제4호로 지정된 광해군의 국구 류자신의 묘역이 현덕왕후(단종의 어머니)의 능묘 예정지로 되어있다. 군자봉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군자봉성황제의 무대라는 점이다.

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군자봉을 성스럽게 생각해 성황제의 대상으로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을 모셨다고 한다. 현재에도 매년 음력 10월 3일 군자봉성황제(경기도무형문화재 59호)를 열고 있다.

놀이시기

군자봉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과 장현동, 능곡동 사이에 위치한 높이 199m의 봉우리로서 주변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예로부터 그 쪽 지역의 마을 사람들은 군자봉에 얹힌 이야기를 가지고 명석을 깔고 삼삼오오 모여 세대에 걸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현재까지 왔다. 시흥시를 대표하는 산이고 그에 얹힌 이야기를 민속극으로 재현한다.

구성

군자봉에 얹힌 설화를 극적요소를 주기위해 민속극으로서 민요, 풍물, 마당극으로 구성한다.

진행과정

가무악 형태로 군자봉설화를 마당극화하여 권선징악의 상징성을 가시화하여 세대 및 인종간, 남녀노소, 다문화가정 모두가 이해하고 어울리며 화합하는 보편성을 가지는 마당극을 만든다.





김포

Best Gimpo 김포시

조강치군패놀이

고종, 정현채, 안호석 | 지도위원, 조문연, 정현채

유래

치군패는 김포의 여러 포구에서 놀았던 농악놀이이다. 조강포구가 있던 조강리에서도 6·25 동란이 일어나기까지 성행했다. 청년들에게 여(女)복을 입혀서 나가면 꽃밭이 되었다고 하며, 여장을 하고 무등을 하면서 놀았다고 전한다.

발굴경위

정현채 (사)지역문화전략연구원장(통진교 교사)은 2006년부터 조강치군패 복원을 위한 조강리·용감리 일대를 탐문하며 자료를 모으고, 조강 치군패 상쇠로 활동했던故김성복(1931년생)씨, 신호철(1933년생)와 접촉해 조강치군패의 모든 내용(가락 채보 등)을 전수 받음.

계보

1대故백만봉(1904生), 2대故서기동(1909生), 3대故김성복(1931生)

특징

치군놀이는 정월초이레에 시작해서 정월 대보름까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농악놀이를 했다. 농악놀이 편성은 갯가리와 북, 장구, 태징, 제금, 호적과 법고놀이 등으로 인근의 다른 마을과 같으나 무등까지 하였던 곳을 보면 포구를 중심으로 농악놀이가 화려했음을 알 수 있다.

6·25 동란 이후에는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이때부터는 주로 김매기를 하면서 농악놀이를 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갯발을 휘두르면서 인근 마을기와 인사를 나누는 중에 상대 갯발이 인사를 하지 않으면 조사(나이가 어린사람)가 상대 갯발에 가서 영자님을 모셔오기도 했다. 조강리 치군패가락은 처음 시작할 때 일채를 “갱 갯 갯 갯 갯갯갯갯갯갯갯” 시작으로 이채가락인 “개개

개개 개개 개개 개개”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시작된다. 사채는 가락이 인근 마을 보다 화려하며 칠채와 육채가락은 같다. 칠채가락을 시작하기 전에 갯가리 도입가락은 웃다리 가락의 북소리인 점고가락과 같다. 칠채 도입가락은 “갱갯 갯갯 갯 갯” 북으로 하면 “둥둥 둥둥 둥~둥” 이 된다.

놀이시기

미상 ~ 1950년 6. 25전

구성

① 갯발(7명), ② 태평소(1명), ③ 갯가리(3명), ④ 징(2명), ⑤ 장구(9명), ⑥ 북(8명), ⑦ 제금(8명), ⑧ 소고(10명)



양평



양평두레놀이

고종, 박건영 | 지도위원, 이산옥

유래

옛날 농민들이 농사일을 할 때 두레농악을 앞세워 일터로 나가 기 전 풍년기원 제를 올리고 계절별로 농사일을 해오며 놀이문화와 농사일을 함께 해왔습니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전수하여 재연하고자 합니다.

발굴경위

1960년 말까지 전해오던 풍년놀이를 농악과 농사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발굴보전 하고자 전수하여 보전하고자 합니다. 특징 농사와 함께하는 놀이문화

놀이시기

정월보름 / 농사철 / 단오절 / 백중 등 농사와 4계절 절기에 따라 풍년을 기원하고 모두의 안녕을 기원하는 모든 것을 위해 민속 놀이로 행해왔다.

구성

기수 / 태평소 / 4물 악기 / 소고 / 피조리 / 샘이 / 잡색 등으로 구성됩니다.

진행과정

점고 소리내기 휘모리 가락으로 한마당 놀고 / 풍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고 자진모리 마당삼매 휘모리 디금자 만들어 벗구 놀이로 맺는다.

2마당, 농토로 이동하며 길굿악을 치며 일터로 이동한다. / 칠채 / 자진모리 / 휘모리 장단으로 맺고 / 3마당, 모내기, 벼베기, 탈곡 등을 한다. 4, 마지막으로, 풍년 맞이 대동놀이를 한다.





수레울 길놀이

고종, 이준용 | 지도위원, 서신석

유래

조선 정조 13년(서기 1789년) 당시 경기도 관찰사이던 서유방(徐有防)은 연천의 차탄천이 늪과 택지(澤地)로 이루어져 장마가 지면 홍수 피해가 끊이지 않았고 가뭄이 들면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황무지로 버려졌던 곳을 당시 임금인 정조에게 진정하여 오늘 날과 같은 하천으로 말끔히 정리를 하여 당시 경기도 관찰사였던 서유방공에게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오월 차탄천에 모여 제례를 지내고 한바탕 길놀이를 펼치는 풍습이 있었다 함.

근거자료 [서유방의 선정비에 化流一道(화류일도)와 澤及殘縣(택급잔현)이라는 글을 새겨 이 비를 세우게 된 경위를 설명함]

※ 차탄천 : 연천지역 하천

발굴경위

연천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원로 노인들에게 일제시대까지 이 놀이가 이어져 왔으나 45년 해방이 되어 연천이 북한에 편입되면서 중단되었다고 함

특징

길놀이를 하며 풍악을 울리고 차탄천에 준비된 제례 장소에 도착 하면 서유방을 기리는 제례를 지낸 후 준비한 음식과 술을 마시며 한바탕 놀다가 다시 길놀이를 하며 귀가함.

놀이시기

매년 오월 모를 심기 전 행하여 졌다고 함.

上之十三年己酉五月日立(상지십삼년기유오월일립)이라는 글귀가 선정비 뒷면에 새겨져 있어서 이 비를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농사철을 앞두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길놀이를 하고 제례를 올렸다고 함.

구성

풍물놀이 팀과 도포를 입은 제주(삼헌관)와 집사 등이 풍악에 맞추어 길놀이를 하며 차탄천의 제례 장소로 향한다. 제례 장소에 다다른 준비해간 제수를 진설하고 위패를 모시고 향을 피우며 축문을 읽는다.(이때에는 모두 무릎 꿇고 축문 읽는 것을 경청한다.) 축문이 끝나면 제주인 초헌관이 앞에 나가 잔을 올리고 두 번 절을 한다. 이후 아헌관과 종헌관이 모두 차례로 잔을 올리고 절을 하여 제례를 끝낸다. 제례가 끝나면 준비해간 술과 안주를 내어 놓고 여럿이 함께 먹으며 이때에는 풍물놀이 팀이 신명나는 사물놀이를 하며 춤을 춘다. 제례 용품을 모두 거두어 귀가할 준비를 하며 귀가할 때에도 사물놀이팀은 연주를 하며 돌아온다.

진행과정

아침 일찍 제수를 준비하고 위패와 축문 등을 준비하여 차탄천에 마련된 제례장소로 사물놀이 팀을 앞세워 지신밟기를 하며 행진한다. 제례 장소에 이르러 제관들과 모든 사람들이 도열한 후 준비해간 축문을 집사가 읽는다. 축문을 읽을 때에는 모두 꿇어 엎드린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순으로 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례가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 술과 음식을 먹고 풍악소리와 함께 즐겁게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행사가 끝나면 준비해간 모든 소품들을 정리하여 가지고 온다. 돌아올 때에도 사물놀이 팀을 앞세워 풍악을 울리며 귀가한다.



군포

Gunpo
군포시



군포군웅제민속마당

고종, 박상오 | 지도위원, 김은희

유래

숙종대왕이 군웅제를 지낸 것에서부터 전해져 이어 오고 있다. 군웅제는 마을의 평온 및 각 가정의 건강과 마을의 발전을 기원하며 한해 추수한 곡식 제물을 바친 것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다.

발굴경위

수리산 도립공원에 위치한 군포시 속달동 덕고개 마을에서 배달나라를 연 14대 황웅천왕(일명 도깨비대왕)으로 붉은 악마의 상징이기도한 도깨비 대왕을 모시는 제례를 마을 제례 행사로 지내왔으며 현존하는 군웅제 중 명맥을 이어온 몇 안되는 민속 역사적인 보존가치를 지닌 민간 제례이다.

특징

군웅제 터주가리는 매년 그 해의 생산된 벼짚으로 엮는데 있고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며 동시에 풍년을 기원하는 역할을 해왔고 2002월드컵에 붉은 악마로 표현된 국민 응원단으로 활약을 한바 있다.

놀이시기

매년 음력 10월1일에 군포시 속달동 당숲에서 행사가 진행된다.

구성

15명의 무용수와 농악 놀이패 35명이 어우러진 민속전통놀이를 선보이고 풍년을 기원하는 길쌈 놀이와 군포아리랑을 선보일 예정이다.

진행과정

조상의 전통 축원에서 일상생활에서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어준 농악 공연과 무용을 곁들여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로 진행되며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전통의 가교 역할을 한다.





고양

고양 아름다운
사랑의 도시, 고양

고양맹인소놀이

고종, 박전열 | 지도위원, 최장규

유래

정월에 각 가정을 돌아다니며 기복을 발원하는 지신밟기와 맥락은 비슷하나 고양맹인소놀이는 정월에 열리는 농악위주의 지신밟기와는 달리, 가을 추수를 마치고 넉넉한 시절인 시월상달에 소와 농사꾼들의 일 년 농사의 수고로움을 달래고, 일 년 내내 가정을 편하게 도와준 여러 가신(家神)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신앙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민속극으로써 전승되어진 놀이이다.

발굴경위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예술재현 및 복원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정기공연을 개최하고 있음.

특징

고양에는 현재도 맹인 판수들이 진행하는 마을굿의 형태가 남아 있고, 민간에서는 맹인 판수를 부르거나 방문하여 기복을 추구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전에는 마을 단위의 민속 놀이에 맹인 판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이 맹인 판수로 분장하여 배역으로 참가하는 민속놀이가 전승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맹인 판수가 참가하는 민속놀이 가운데 본 소놀음은 주로 가을에 마을이나 가정단위의 재수굿의 일부로 연희되었지만, 차츰 굿의 성격보다는 연극성이 강한 놀이로 연희되며 마을사람의 대동놀이로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놀이시기

추수가 끝난 가을시기 (시월상달)

구성

총 5마당으로 구성_ ① 첫째마당 (길놀이), ② 둘째마당 (인물치레), ③ 세째마당 (맹인재담), ④ 네째마당 (소 내력), ⑤ 다섯째마당 (대동놀이)

진행과정

입장→소놀이(다섯마당)→인사굿→퇴장



안산



안산와리풍물놀이

고종,故 박해일, 천병희 | 지도위원,차도열, 김진옥

유래

안산시 와동(옛 지명 : 와리, 와상리, 동작리) 마을에는 재인(才人)이 많이 살아 조선시대부터 그 명성이 높았으며 조선말기 경복궁 재건 당시 대원군에게 친필로 쓴 농기(農旗)와 악기를 하사받았다. 그 후 와리두레의 농기는 양반기 대접을 받았고 와리두레는 선생두레로 불려 다른 마을의 두레와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받고 답례를 하였다.

발굴경위

1970년대 후반 안산 신도시 개발로 원주민들이 이주하면서 두레가 해체되었다가 1991년 안산문화원에서 발굴, 복원.

특징

가락과 판굿은 인근지역의 웃다리풍물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놀이마당에 들어서 바로 마당밧기에 들어가고 이때 마당잰이라는 가락을 치며 오방진을 치는데 이는 와리두레놀이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상쇠가 먼저 '개개깡 깡깡'하고 쇠소리를 내면 이를 뒷잰이들이 받아친다. 다시 상쇠가 '갸지 갸지 깡깡'하고 쇠를 굴려 치면 역시 이를 뒷잰이들이 받아치며 이를 반복하여 치며 동서남북, 중앙 다섯 군데 진을 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진을 감은 상태에서 몰아잰이 가락을 신명나게 치고 나서 길고낙(길군악7채)을 치며 풀고 나온다.

이 마당밧기는 놀이를 시작하며 지신을 밟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며 군대의 진치기를 묘사한 것으로 마당잰이 가락은 옛 군인들이(안산 초지진의 둔전병) 군호로 쓰던 것이라고 한다.

놀이시기

연중

구성 및 진행과정

• 판굿

판굿은 상쇠의 기량, 벽구잰이들의 기량, 놀이를 연출하는 사람이나 연희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짜여지는 판굿의 짜임은 다음과 같다.

1) 잰이모으기 2) 마당밧기(오방진) 3) 돌림밧구 4) 찹찹이굿 5) 당산벌림 6) 쌍줄백이 7) 개인놀음 8) 명석말이 9) 사통백이 10) 종대치기 11) 가새치기 12) 마당씻기 13) 인사굿

• 가락

가락이름은 와리풍물두레에서 옛부터 쓰던 용어이며 다음과 같다 더드래기(덩덕궁이, 삼채)·인사굿(타지역과 끝장단이 약간틀림)·마당잰이·마당놀이쇠(마당삼채)·몰아잰이(자진가락, 일채)·섬치기·우물가락(샘굿)·길고낙(길군악,칠채)·넙치기(육채)·찹찹이가락·연풍대



남한산성취고수악

고종,이숙희, 김정수, 김문자 | 지도위원,이용식, 민성기

광주



유래

조선후기 남한산성에는 행궁 앞에 악공청이 자리 잡고 있어 악사들이 행궁 또는 관아에서 제례, 연향, 임금의 행차, 과거 급제자의 문회연, 주조와 야조 등의 군사훈련에서 행해지던 남한산성취고수악(吹鼓手악)이 연주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문헌에 따르면 남한산성 수어청에는 314명의 취고수악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전국 군영악대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굴경위

조선조 궁중의 선전관청과 각 영문에 소속된 악수들에 의해서 임금이 성문 밖이나 능으로 행차할 때 연주되던 세악수 중심의 대취타만이 연주되고 있다. 하지만 취고수악은 현재 전승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취고수악(吹鼓手악)을 복원하여 연주하는 곳은 전국에 없을 뿐 만 아니라 대취타와 다른 형태로 연주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취타에는 없는 악기들이 대각, 술발, 점자를 복원하여 연주를 하기 때문에 현재 연주되고 있는 대취타와는 많은 모습이 다르다. 우리나라 남한산성 수어청에 우리만의 우수성을 지닌 취고수악대가 있었으며 이제 뫼맹스럽던 옛 우리 군대의 모습과 소리를 다시 찾아 세계 속에 우뚝 세워 보고자 발굴하게 되었다.

특징

'취고수'는 조선후기 새로 등장한 군영악대로써 취타악기 연주자로 구성된 집단이었다. 취타란 원래 입으로 부는 취악기와 손으로 치는 타악기를 함께 연주하는 것에서 나온 용어다. 남한산성취고수악대는 우리나라 전통 군악대이다. 취타에 사용되는 취악기로는 태평소, 대각, 나발, 나각 등이 있고 타악기로는 징, 용고, 바라, 장고, 술발, 점자 등이 있다.

구성

악기편성은 취고수악대는 나발 - 나각 - 대각 - 태평소 - 용고 - 장구 - 북 - 바라 - 술발 - 점자 - 징으로 악기가 편성된다.

진행과정

별점 2.

※남한산성취고수악대의 편성

1. 행진입장-광파르



2. 진형절차 무령지곡 연주 <진형>

바라	나각	나발	태평소	용고
징	등채			

3. 용고마치변형 마치음악 (1번의식) - (2번의식) - (3번의식) 대형갯취마무리



4. 행진진행 - 퇴장



4. 체험 및 부대행사, 축하공연

4_1.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

일 시	2016. 9. 23~24 10:00~17:00
장 소	체육관 외부 운동장
협력, 진행	
내 용	전통 문화 체험마당 운영 * 직접 체험에 참가하여 만든 작품은 참가자 소유 민화체험 -민화를 통한 부채 만들기 체험 목공예 -나무를 재료로 하여 수리부엉이 등을 만드는 체험 비즈공예 -열쇠고리, 핸드폰 고리 등 나만의 장식품만들기 꽃차체험 -계절 꽃을 이용한 꽃차 만들기 세부프로그램 천연향기 -아로마 향초, 천연비누 등 천연방향제 만들기 전통음식 -조상들이 즐겨먹던 떡 만들기 체험 전통놀이 -전통놀이의 현대적 해석 박물관 홍보 -박물관이 많은 도시 부천의 대표 박물관 홍보 민속판화 -민속화 등을 판화로 체험

4_2. 부천역사문화투어

일 시	2016. 9. 23~24 10:00~17:00
장 소	체육관 외부 운동장
내 용	부천의 한옥체험관련, 민화박물관 등 소개

4_3. 초대공연

• 오은령무용단 진도북춤 : 2016. 9. 23.(금) 11:00 특설무대

1988년 창단되어 해외공연과 300여회의 국내 공연을 통해서 수준과 기량을 인정 받아온 오은령무용단은 우리전통에 내재된 내적인 아름다움을 작품을 통해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전통 무용단.



- 민속예술단 나눔소리 : 2016. 9. 23.(금) 11:00 특설무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한 전문 연희단체, '상생'이라는 제목의 대북공연.



- 송파산대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 : 2016. 9. 24.(토) 15:00~15:30
특설무대

서울 송파지역에서 전승되던 탈놀이로 모두 7과장으로 구성. 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이며 제1과장인 '상좌춤'부터 7과장 '신할아버지와 신할미'연희까지 차례로 타령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신명나는 마당놀이.



- 부천문화원 챔버 오케스트라 : 2016. 9. 24.(토) 18:00 특설무대
부천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오케스트라의 가을빛 향연.



- 프라임 우쿠렐레 앙상블 : 2016. 9. 24.(토) 18:00 특설무대
부천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생활문화예술단체의 즐거운 하모니.



IV. 운영 부분

1. 인력운영
2. 시설임차 현황
3. 행사기록
4. 주차 관리 운영
5. 행사보험
6. 유관기관 및 부서별 협조

1. 인력운영

1_1. 행사진행인력

일 자	장 소	인 원	업무 내용
9/23(금) ~9/24(토)	경연무대	25	심사위원 보조 공연팀 입,퇴장 관리 무대 변환 및 소품 운반
	주차장 및 야외 체험부스	180	주차 및 관람 안내 전시 및 체험부스 관리, 운영

1_2. 자원봉사자 운영

- 총 인원: 70명
- 모집방법: 관내 자원 봉사자 모집
- 활동기간: 9. 23 ~ 24
- 배치 및 업무

배치 장소	인원	주요 업무
경연대회 (실내체육관 내)	30	• 출연팀 입, 퇴장 도우미 • 객석 안내 및 정리 • 홍보물 배포 및 청소 • 대기실 관리
주차장 및 시설관리	12	• 주차 안내 및 행사장 안내 • 행사장 정리 정돈
종합안내소	14	• 관람객 안내 • 홍보물 배포 및 청소 • 후생 물품 관리
체험부스 및 부대행사	14	• 체험 참가자 안내 • 부스 운영 지원 • 행사장 정리 정돈

2. 시설임차 현황

2_1. 시설 임차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음향	스피커 및 악기, 음향 콘솔, 무선 MIC 5, 유선 5, 핀마이크 8
조명	무빙라이트, 메인콘솔, 무대효과, 핀 조명, 발전차 등
무대	간이 무대 설치, 바닥재 설치, 12M*7M일자백드럽, 행사장 입구 안내 트러스 등
렌탈용품	케노피, 무전기, 책상 및 의자, 냉온수기, 기타 전기시설 등

2_2. 시설 설치 계획

구 분		부 대 시 설									
		부 스			책상	의자	전기	현수막	배너 (학습원)	상 하 수 도	점수기
		몽골	케노피	파라솔							
메인무대 (실내)	본부석				3	10					1
	기자석			1	2	10	1				1
	보건위생			1	1	10					1
	자원봉사자				1	20					1
	심사위원실				2	10					
	내빈석					60					
종합안내소 (야외)	종합안내 및 운영부스	1			3	20		1			
	부천 관광소개	1			2	20		1			1
	출연자 확인	1			2	10		1			
전시 / 체험	민화	1			4	15		1			
	목공예	1			4	15		1			
	비즈공예	1			3	15		1			
	꽃차	1			3	15		1			
	전통음식(떡케익)	1			4	15	1	1			
	전통놀이	1			3	15	1	1			
	박물관전시	1			4	15		1			
	민속판화	1			4	15		1			
기타	천연향기(즐거움엄마공동체)	1			3	15		1			
	야외공연무대		1		2	100		1			
	탈의실		4		4	20		4			
	먹거리부스(섭취)	3			10	100	5	3			
	음향부스		1		1	5					
합 계		15	6	2	65	530	8	20	0	0	5

3. 행사 기록

• 동영상 촬영 : DVD 2중 제작

1. 축제 개폐막식 (개폐막식 주요 내용 편집본)
2. 참가단체별 경연동영상 촬영 (해당 문화원으로 배포)

• 사진 촬영 : 주요 행사 스케치, 경연대회 촬영

참가단체별 경연 촬영 사진은 해당 문화원으로 동영상과 함께 배포

4. 주차 관리 운영

4_1. 주차 관리 개요

• 주차 관리 운영 일시

- 2016. 9. 23 ~ 9. 24 (08:00 - 19:00)

4_2. 장소별 주차 관리

위치	내용
부천체육관 초입구	○ 행사장입구 차량 출입 관리 및 주차장 안내 ○ 내빈차량안내
부천체육관 내 주차장 3개소	○ 내빈차량 ○ 대형 차량 외 일반 차량 전체 ○ 1개소 경연대회에 참여한 버스, 대형트럭 주차 전용

5. 행사보험

- 목적: 부상 및 안전사고, 도난사고에 대비한 행사장 보험 가입
- 내역: 영업배상 책임보험
- 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
- 보험기간: 2016. 9. 22 00:00시 부터 9. 24. 24:00시 까지
- 보상한도액: 대인_1인당 10,000천원 / 1사고당 30,000천원(자기부담금 100천원)
 대물_1사고당 50,000천원(자기부담금 100천원)
 구내치료비_1인당 2,000천원 / 1사고당 5,000천원

6. 유관기관 및 부서별 협조

기관 및 부서	내 용
경기도 (문화정책과)	각 시, 군 참가단체 예산 지원 각 시, 군 지자체 담당 연계, 행사 안내 행사 관련 행정지원 외
부천시청	각 부서, 유관기관 별 행사 홍보 및 적극적 참여
부천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지원 및 행사 홍보
부천시 모범운전자회	교통 통제, 주차관리 자원봉사 지원 및 행사 홍보

V. 홍보

1. 인쇄홍보물
2. 옥외홍보물
3. 언론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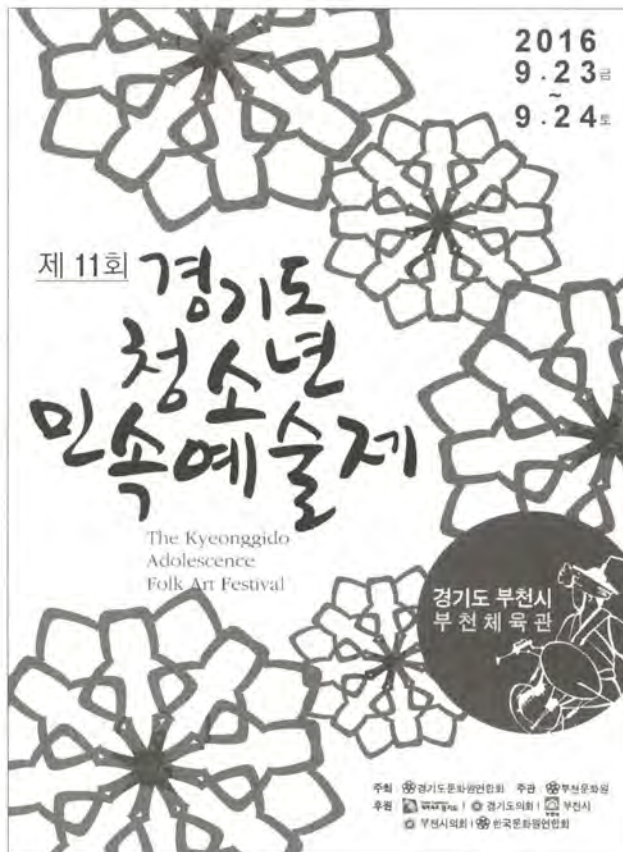
1. 인쇄 홍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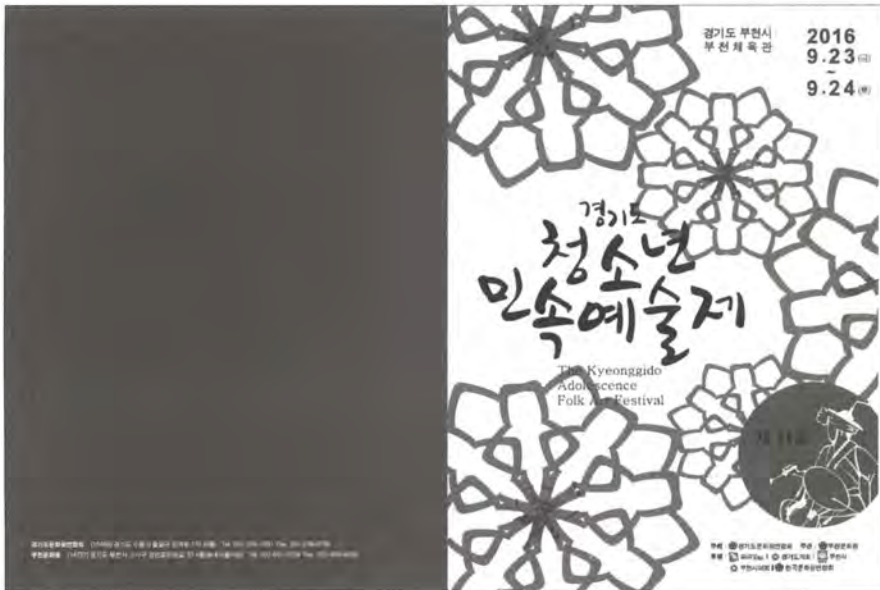
1_1. 제작내역

구분	사 양	수량	일정
포스터	국반절, 단면 4도	500	제작완료: 8/24 발송 및 배포: 9/5
축제 프로그램북	180x254_48p/4도	1,500	제작완료: 9/19
축제 전단지	A4/4도	1,000	제작완료: 9/2 1차 발송 및 배포: 9/19 2차 발송 및 배포: 9/23
초청장	16절(B4) / 양면 4도 (봉투포함)	1,000	제작완료: 9/2 발송 및 배포: 9/5
축제 결과보고서	180x254_100p /4도 8p	50	완료: 12/31

1_2. 디자인 시안

축제 포스터





축제 전단지 앞 뒤 이미지



초청장_ 앞·뒤 이미지



2. 옥외 홍보물

2_1. 제작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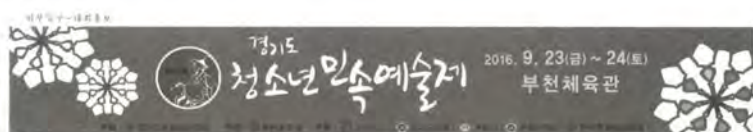
구분	사이즈(가로*세로/cm)	수량	일정
실내 시·군 홍보용	90X400	29	
입구 대회 홍보	1200X180	1	
실내 대회 홍보	1140X120	1	
체육관 내 동선안내	60X180	10	
체육관 주변 차량 동선안내	600X90	5	
거리 홍보 베너(가로기)	60X180	50	
옥외 홍보탑 전용	180X450	2	
행사부스현수막小	50X500	15	
행사부스현수막大	50X600	4	
시군피켓	30X60X90	28	
입장(1)/퇴장(1)	50X130	2	
문화원 공고쪽 현수막	600X90	1	
버스광고	버스외·내부 중앙문	12대	8/25~9/24

2_2. 디자인 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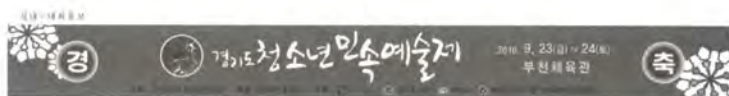
실내 시군 홍보용



입구 대회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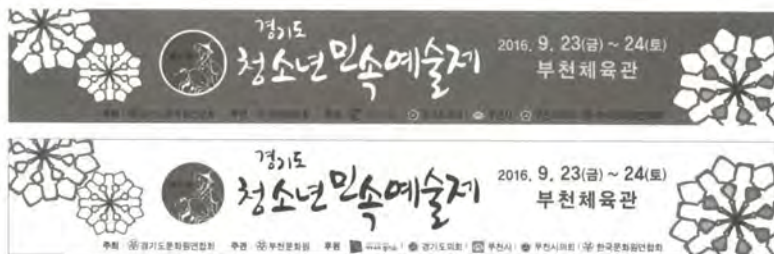
실내 대회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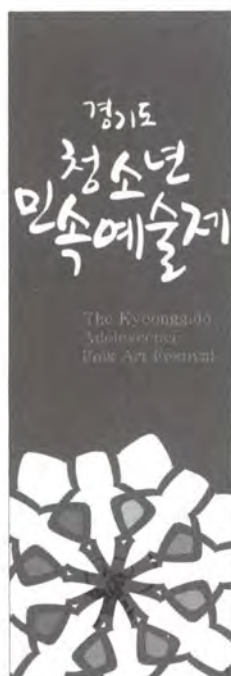


체육관 내 동선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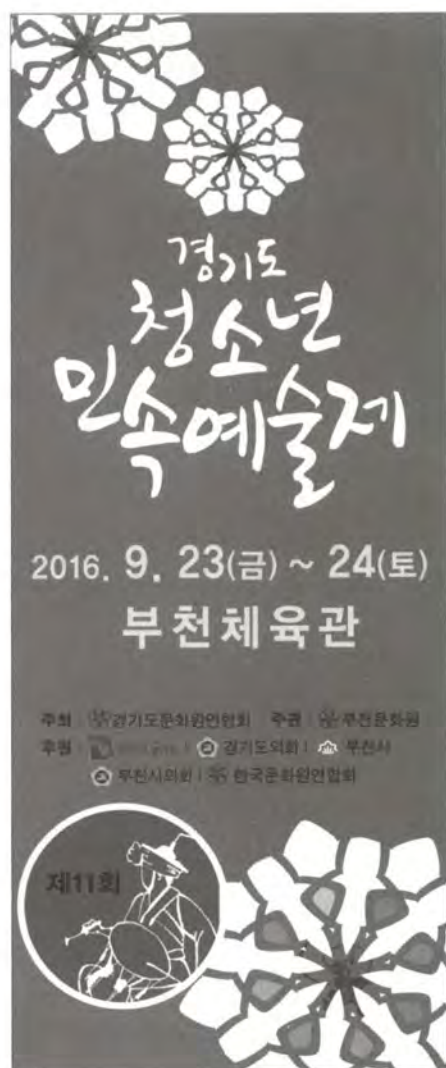


체육관 주변 차량 동선안내, 문화원 공고쪽 현수막





옥외 홍보탑 전용







3. 언론홍보

3_1. 게재 현황

구분	보도일자	언론사	기사주소	타이틀
1	2016. 8. 31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00962	청소년 28개팀 민속예술 경합 벌인다
2	2016. 9. 20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38450	경기도 대표 청소년민속축제 23~24일 부천에서 개최
3	2016. 9. 20	부천타임즈	http://www.bucheo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66	제11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부천체육관에서
4	2016. 9. 21	경기신문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398	경기도 대표는 어느 팀?...부천서 겨뤄보세
5	2016. 9. 24	부천타임즈	http://www.bucheo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80	부천여월초,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대상 수상
6	2016. 9. 26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41686	제11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농악·민속극·민속놀이 등 다양한 경연무대 선보여
7	2016. 9. 26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41685	제11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대상 수상한 여월초 지도감사 인터뷰

3_2. 언론보도 스크랩

중부일보 8월 31일

청소년 28개팀, 민속예술제 경합

내달 23일부터 부천체육관

민속놀이, 민속무용, 민요, 풍물 등 경기도를 대표하는 민속예술 공연이 경합을 벌이는 '제11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가 다음 달 23일부터 여월초 부천체육관에서 열린다. 시·군·구·시·군에서 총 28개 팀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이 각 지역의 풍습과 정서를 담은 민속놀

이, 민속무용, 민속극, 소리 등 민속예술 장르의 그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펼친다.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도를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축제에는 경연대회 뿐 아니라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개막공연으로는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한 전문 연희단체인 민속예술단 '나눔소리'가 '상생'을 주제로 대북공연을 선보이고 '오른팔무용단'이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표현



하는 화려한 공연을 펼친다.

24일 폐막공연에는 부천문화원 합비오케스트라의 특별공연과 성황문화예술단체인 '프라이밍 우엘렐레'의 임상별이 무대에 오른다.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풍요무형문화제 4호인 '송파산대놀이'는 24일 오후 외부운동장에서 흥을 더한다.

영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장은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선조들이 느꼈던 삶의 기쁨과 슬픔, 환희와 절망을 우리와 상상소리로 북소리로, 호른인 장구소리로, 뿔과 리로 전소리로 전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현민기자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23~24일 부천체육관

“한국의 맛·멋·흥, 신명나게 즐겨보세”

경기도의 청소년들이 펼쳐, 사뭇차가는 전통문화의 향연. 민속, 전통악기 연주, 전통무예 등을 선보이는 23~24일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이하 청소년민속예술제)가 23~24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린다.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이하 청소년민속예술제)가 23~24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린다.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이하 청소년민속예술제)가 23~24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린다.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이하 청소년민속예술제)가 23~24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린다.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이하 청소년민속예술제)가 23~24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린다.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이하 청소년민속예술제)가 23~24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린다.

경기지역언론사협회 (Gyeonggi Press Association) bucheontimes 부천타임즈 www.bucheontimes.com

뉴스 | 객석센터 | 마이페이지

전체기사 | 1기 | 2기 | 3기 | 4기 | 5기 | 6기 | 7기 | 8기 | 9기 | 10기 | 11기 | 12기 | 13기 | 14기 | 15기 | 16기 | 17기 | 18기 | 19기 | 20기 | 21기 | 22기 | 23기 | 24기 | 25기 | 26기 | 27기 | 28기 | 29기 | 30기 | 31기 | 32기 | 33기 | 34기 | 35기 | 36기 | 37기 | 38기 | 39기 | 40기 | 41기 | 42기 | 43기 | 44기 | 45기 | 46기 | 47기 | 48기 | 49기 | 50기 | 51기 | 52기 | 53기 | 54기 | 55기 | 56기 | 57기 | 58기 | 59기 | 60기 | 61기 | 62기 | 63기 | 64기 | 65기 | 66기 | 67기 | 68기 | 69기 | 70기 | 71기 | 72기 | 73기 | 74기 | 75기 | 76기 | 77기 | 78기 | 79기 | 80기 | 81기 | 82기 | 83기 | 84기 | 85기 | 86기 | 87기 | 88기 | 89기 | 90기 | 91기 | 92기 | 93기 | 94기 | 95기 | 96기 | 97기 | 98기 | 99기 | 100기 | 101기 | 102기 | 103기 | 104기 | 105기 | 106기 | 107기 | 108기 | 109기 | 110기 | 111기 | 112기 | 113기 | 114기 | 115기 | 116기 | 117기 | 118기 | 119기 | 120기 | 121기 | 122기 | 123기 | 124기 | 125기 | 126기 | 127기 | 128기 | 129기 | 130기 | 131기 | 132기 | 133기 | 134기 | 135기 | 136기 | 137기 | 138기 | 139기 | 140기 | 141기 | 142기 | 143기 | 144기 | 145기 | 146기 | 147기 | 148기 | 149기 | 150기 | 151기 | 152기 | 153기 | 154기 | 155기 | 156기 | 157기 | 158기 | 159기 | 160기 | 161기 | 162기 | 163기 | 164기 | 165기 | 166기 | 167기 | 168기 | 169기 | 170기 | 171기 | 172기 | 173기 | 174기 | 175기 | 176기 | 177기 | 178기 | 179기 | 180기 | 181기 | 182기 | 183기 | 184기 | 185기 | 186기 | 187기 | 188기 | 189기 | 190기 | 191기 | 192기 | 193기 | 194기 | 195기 | 196기 | 197기 | 198기 | 199기 | 200기 | 201기 | 202기 | 203기 | 204기 | 205기 | 206기 | 207기 | 208기 | 209기 | 210기 | 211기 | 212기 | 213기 | 214기 | 215기 | 216기 | 217기 | 218기 | 219기 | 220기 | 221기 | 222기 | 223기 | 224기 | 225기 | 226기 | 227기 | 228기 | 229기 | 230기 | 231기 | 232기 | 233기 | 234기 | 235기 | 236기 | 237기 | 238기 | 239기 | 240기 | 241기 | 242기 | 243기 | 244기 | 245기 | 246기 | 247기 | 248기 | 249기 | 250기 | 251기 | 252기 | 253기 | 254기 | 255기 | 256기 | 257기 | 258기 | 259기 | 260기 | 261기 | 262기 | 263기 | 264기 | 265기 | 266기 | 267기 | 268기 | 269기 | 270기 | 271기 | 272기 | 273기 | 274기 | 275기 | 276기 | 277기 | 278기 | 279기 | 280기 | 281기 | 282기 | 283기 | 284기 | 285기 | 286기 | 287기 | 288기 | 289기 | 290기 | 291기 | 292기 | 293기 | 294기 | 295기 | 296기 | 297기 | 298기 | 299기 | 300기 | 301기 | 302기 | 303기 | 304기 | 305기 | 306기 | 307기 | 308기 | 309기 | 310기 | 311기 | 312기 | 313기 | 314기 | 315기 | 316기 | 317기 | 318기 | 319기 | 320기 | 321기 | 322기 | 323기 | 324기 | 325기 | 326기 | 327기 | 328기 | 329기 | 330기 | 331기 | 332기 | 333기 | 334기 | 335기 | 336기 | 337기 | 338기 | 339기 | 340기 | 341기 | 342기 | 343기 | 344기 | 345기 | 346기 | 347기 | 348기 | 349기 | 350기 | 351기 | 352기 | 353기 | 354기 | 355기 | 356기 | 357기 | 358기 | 359기 | 360기 | 361기 | 362기 | 363기 | 364기 | 365기 | 366기 | 367기 | 368기 | 369기 | 370기 | 371기 | 372기 | 373기 | 374기 | 375기 | 376기 | 377기 | 378기 | 379기 | 380기 | 381기 | 382기 | 383기 | 384기 | 385기 | 386기 | 387기 | 388기 | 389기 | 390기 | 391기 | 392기 | 393기 | 394기 | 395기 | 396기 | 397기 | 398기 | 399기 | 400기 | 401기 | 402기 | 403기 | 404기 | 405기 | 406기 | 407기 | 408기 | 409기 | 410기 | 411기 | 412기 | 413기 | 414기 | 415기 | 416기 | 417기 | 418기 | 419기 | 420기 | 421기 | 422기 | 423기 | 424기 | 425기 | 426기 | 427기 | 428기 | 429기 | 430기 | 431기 | 432기 | 433기 | 434기 | 435기 | 436기 | 437기 | 438기 | 439기 | 440기 | 441기 | 442기 | 443기 | 444기 | 445기 | 446기 | 447기 | 448기 | 449기 | 450기 | 451기 | 452기 | 453기 | 454기 | 455기 | 456기 | 457기 | 458기 | 459기 | 460기 | 461기 | 462기 | 463기 | 464기 | 465기 | 466기 | 467기 | 468기 | 469기 | 470기 | 471기 | 472기 | 473기 | 474기 | 475기 | 476기 | 477기 | 478기 | 479기 | 480기 | 481기 | 482기 | 483기 | 484기 | 485기 | 486기 | 487기 | 488기 | 489기 | 490기 | 491기 | 492기 | 493기 | 494기 | 495기 | 496기 | 497기 | 498기 | 499기 | 500기 | 501기 | 502기 | 503기 | 504기 | 505기 | 506기 | 507기 | 508기 | 509기 | 510기 | 511기 | 512기 | 513기 | 514기 | 515기 | 516기 | 517기 | 518기 | 519기 | 520기 | 521기 | 522기 | 523기 | 524기 | 525기 | 526기 | 527기 | 528기 | 529기 | 530기 | 531기 | 532기 | 533기 | 534기 | 535기 | 536기 | 537기 | 538기 | 539기 | 540기 | 541기 | 542기 | 543기 | 544기 | 545기 | 546기 | 547기 | 548기 | 549기 | 550기 | 551기 | 552기 | 553기 | 554기 | 555기 | 556기 | 557기 | 558기 | 559기 | 560기 | 561기 | 562기 | 563기 | 564기 | 565기 | 566기 | 567기 | 568기 | 569기 | 570기 | 571기 | 572기 | 573기 | 574기 | 575기 | 576기 | 577기 | 578기 | 579기 | 580기 | 581기 | 582기 | 583기 | 584기 | 585기 | 586기 | 587기 | 588기 | 589기 | 590기 | 591기 | 592기 | 593기 | 594기 | 595기 | 596기 | 597기 | 598기 | 599기 | 600기 | 601기 | 602기 | 603기 | 604기 | 605기 | 606기 | 607기 | 608기 | 609기 | 610기 | 611기 | 612기 | 613기 | 614기 | 615기 | 616기 | 617기 | 618기 | 619기 | 620기 | 621기 | 622기 | 623기 | 624기 | 625기 | 626기 | 627기 | 628기 | 629기 | 630기 | 631기 | 632기 | 633기 | 634기 | 635기 | 636기 | 637기 | 638기 | 639기 | 640기 | 641기 | 642기 | 643기 | 644기 | 645기 | 646기 | 647기 | 648기 | 649기 | 650기 | 651기 | 652기 | 653기 | 654기 | 655기 | 656기 | 657기 | 658기 | 659기 | 660기 | 661기 | 662기 | 663기 | 664기 | 665기 | 666기 | 667기 | 668기 | 669기 | 670기 | 671기 | 672기 | 673기 | 674기 | 675기 | 676기 | 677기 | 678기 | 679기 | 680기 | 681기 | 682기 | 683기 | 684기 | 685기 | 686기 | 687기 | 688기 | 689기 | 690기 | 691기 | 692기 | 693기 | 694기 | 695기 | 696기 | 697기 | 698기 | 699기 | 700기 | 701기 | 702기 | 703기 | 704기 | 705기 | 706기 | 707기 | 708기 | 709기 | 710기 | 711기 | 712기 | 713기 | 714기 | 715기 | 716기 | 717기 | 718기 | 719기 | 720기 | 721기 | 722기 | 723기 | 724기 | 725기 | 726기 | 727기 | 728기 | 729기 | 730기 | 731기 | 732기 | 733기 | 734기 | 735기 | 736기 | 737기 | 738기 | 739기 | 740기 | 741기 | 742기 | 743기 | 744기 | 745기 | 746기 | 747기 | 748기 | 749기 | 750기 | 751기 | 752기 | 753기 | 754기 | 755기 | 756기 | 757기 | 758기 | 759기 | 760기 | 761기 | 762기 | 763기 | 764기 | 765기 | 766기 | 767기 | 768기 | 769기 | 770기 | 771기 | 772기 | 773기 | 774기 | 775기 | 776기 | 777기 | 778기 | 779기 | 780기 | 781기 | 782기 | 783기 | 784기 | 785기 | 786기 | 787기 | 788기 | 789기 | 790기 | 791기 | 792기 | 793기 | 794기 | 795기 | 796기 | 797기 | 798기 | 799기 | 800기 | 801기 | 802기 | 803기 | 804기 | 805기 | 806기 | 807기 | 808기 | 809기 | 810기 | 811기 | 812기 | 813기 | 814기 | 815기 | 816기 | 817기 | 818기 | 819기 | 820기 | 821기 | 822기 | 823기 | 824기 | 825기 | 826기 | 827기 | 828기 | 829기 | 830기 | 831기 | 832기 | 833기 | 834기 | 835기 | 836기 | 837기 | 838기 | 839기 | 840기 | 841기 | 842기 | 843기 | 844기 | 845기 | 846기 | 847기 | 848기 | 849기 | 850기 | 851기 | 852기 | 853기 | 854기 | 855기 | 856기 | 857기 | 858기 | 859기 | 860기 | 861기 | 862기 | 863기 | 864기 | 865기 | 866기 | 867기 | 868기 | 869기 | 870기 | 871기 | 872기 | 873기 | 874기 | 875기 | 876기 | 877기 | 878기 | 879기 | 880기 | 881기 | 882기 | 883기 | 884기 | 885기 | 886기 | 887기 | 888기 | 889기 | 890기 | 891기 | 892기 | 893기 | 894기 | 895기 | 896기 | 897기 | 898기 | 899기 | 900기 | 901기 | 902기 | 903기 | 904기 | 905기 | 906기 | 907기 | 908기 | 909기 | 910기 | 911기 | 912기 | 913기 | 914기 | 915기 | 916기 | 917기 | 918기 | 919기 | 920기 | 921기 | 922기 | 923기 | 924기 | 925기 | 926기 | 927기 | 928기 | 929기 | 930기 | 931기 | 932기 | 933기 | 934기 | 935기 | 936기 | 937기 | 938기 | 939기 | 940기 | 941기 | 942기 | 943기 | 944기 | 945기 | 946기 | 947기 | 948기 | 949기 | 950기 | 951기 | 952기 | 953기 | 954기 | 955기 | 956기 | 957기 | 958기 | 959기 | 960기 | 961기 | 962기 | 963기 | 964기 | 965기 | 966기 | 967기 | 968기 | 969기 | 970기 | 971기 | 972기 | 973기 | 974기 | 975기 | 976기 | 977기 | 978기 | 979기 | 980기 | 981기 | 982기 | 983기 | 984기 | 985기 | 986기 | 987기 | 988기 | 989기 | 990기 | 991기 | 992기 | 993기 | 994기 | 995기 | 996기 | 997기 | 998기 | 999기 | 1000기

부천타임즈-왕중중 대표기자

제11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The Gyeonggido Adolescence

홈 > 뉴스 > 문화

경기도 대표는 어느 팀?... 부천시 거뤄보세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23~24일 개최

2016년 09월 21일 20:06:42

민경화 기자 mkh@kgnews.co.kr



경기도의 민속예술이 펼쳐지는 제11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가 오는 23일과 24일 오전 9시 부천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는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발굴과 전승, 보존을 위해 격년제로 열리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소년민속축제이다.

경기도 각 시·군에서 지역의 풍습과 정서를 담은 민속놀이, 민속무용, 민요, 풍물 등의 대표 민속예술 공연 축제로 경연 형식으로 진행되며,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은 전국대회인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려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

23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리는 개막식에는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한 전문 연희단체인 민속예술단 '나눔소리'가 대북공연을 선보이며 '오은형무용단'이 한국 정중동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화려한 공연

부 > 뉴스 > 문화/예술

부천여월초,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대상 수상

2016년 09월 24일 (토) 20:54:57

서희연 기자 sosy202@naver.com



▲ 제11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대상을 수상한 여월초등학교 풍물단 (c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 여월초등학교 풍물단이 24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제11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영예의 대상(경기도지사상)을 차지해 2017년에 열리는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게 됐다.

9월 23일(금)~24일(토) 양일간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는 경기도 28개시·군에서 출전해 경연형식으로 진행됐다.

여월초등학교 풍물단(연출:손영철 예술감독/지도교사:남상훈)이 선보인 '중리풍물(中里風物)놀이'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이전인 1970년도 초까지 부천의 옛 중리(중동)지역인 장말과 넘말을 중심으로 전승 되어온 풍물놀이이다.

경기일보

본문 1면 10월 10일

제11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농악·민속극·민속놀이 등 다양한 경연무대 선보여

주최: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후원: 경기문화재단, 주관: 경기문화재단, 주최: 경기문화재단, 주관: 경기문화재단, 주최: 경기문화재단, 주관: 경기문화재단



▲ 경기문화재단 민속예술제 공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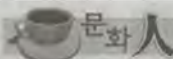
제11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농악·민속극·민속놀이 등 다양한 경연무대 선보여

"농악이 뭘 먹을까? 농악이 뭘 먹을까? 농악이 뭘 먹을까?"

경연무대가 끝나자 많은 관객들 속에서 흥겨운 민속놀이 공연이 펼쳐졌다. 이날은 전통민속놀이와 민속놀이 등이 이어지며 관객들이 좋아했다.

제11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23~24일 양일간 부천시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주최: 경기문화재단, 주관: 경기문화재단, 후원: 경기문화재단, 주관: 경기문화재단, 주최: 경기문화재단, 주관: 경기문화재단

24일 오후 3시, 체육관 내에서는 다양한 민속예술이 펼쳐졌다. 한 팀당 40~5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팀들은 민속예술을 선보였다. 민속극, 민속놀이 등 각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민속예술을 선보였다.



손영철 부천여월초 지도위원

도청청소년민속예술제 대상 전인

"풍물놀이를 아이들 공동체 정신 키워"

"아이들이 사회성과 공동체 정신을 키우게 된 것이 가장 큰 결실입니다"

제11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중리풍물놀이>로 대상을 차지한 부천여월초의 지도위원 손영철(52)의 소감이다. 부천여월초의 37명 학생들은 지난 23~24일 이틀간 부천시체육관에서 열린 예술제에서 1970년 초까지 부천 중동 지역에 지명 중리에서 전승되어온 풍물놀이를 선보였다.

손 지도위원은 부천여월초에서 지난 1997년부터 방과 후 학습으로 중리풍물놀이반을 운영, 대동령상·금상·자상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이룬 베테랑이다.

"20여 년 가까이 풍물반을 이끌어 오면서 우리 학생들이 여러 대회에서 수상하고 해외 초청 공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는 워낙 잘하는 고등학생들도 많이 참가해 수상은 생각도 못했죠. 다행히 실수 없이 해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수상도 기쁘지만,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룬 보람이 더 만족스럽다.

그는 "정신과 질량을 잃는 아이들이 다른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풍물 연주할 때 전통문화예술이 서로 배려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장점을 스스로 느낀 손 씨의 제자 중 일부는 전문 공연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예술제 축하 공연에 나선 예술단 '나눔소리'에도 부천여월초 졸업생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그는 "아이들이 인생의 길을 전통예술에서 찾을 때 말로 할 수 없이

기쁘다"면서 "풍물을 하는 학교가 줄어들고 있지만 교육 효과를 널리 알린 다른 학교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오익·손영철 기자



VI. 종합
평가

1. 총 평

- 경기도를 대표하는 민속예술을 뽑는 경연의 장으로서 총 28개 시, 군에서 약1100여명이 참여 경연을 펼침
- 경기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경기도 고유의 민속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기도의 문화적 정체성 및 우수성을 널리 알리 수 있었음.
- 청소년 대회는 완성도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지만, 기존 성인대회에서와 같은 완성도를 보여, 청소년민속예술의 가능성을 견고히 함.
- 31개 시군의 민속예술이 한데 어우러지는 본 축제를 통해, 민속예술을 보존하는 청소년 참가자 및 관계자들에게는 문화적 자부심을, 그리고 관람하는 도민들에게는 경기도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었음.
- 주최, 주관 간의 긴밀한 협업으로 행사 운영이 원만히 진행되었으며, 참가자 및 관람객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 만족도를 높임.
- 주최, 주관 간의 결과보고서 공유작업으로 매해년도의 사업의 완성도를 높임.

2. 세부 평가

2_1. 기획 및 준비단계

- 경기도의 민속예술을 도민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로 진행되었음.
- 원활한 소통과 업무 분장으로 참가자 및 관람객 모두가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함.
-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대회를 운영하고자 기존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해 재차 공지하였음.

2_2. 축제 프로그램 관련

- 경연대회 관련
 - 참가팀을 위해 연출용 소품 등은 입장으로 근처에서 하차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탈의실 확보로 사전 준비 가능하도록 함.
 - 입 퇴장 시 대규모 참가자들의 동선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행사진행요원을 적절적소에 충분히 배치.
 - 참가신청서 수정 기간 동안과 그 이후에도 참가자 변경 요청 등의 상황이 발생함.
 - 청소년의 경우, 학업과 취업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경연당일에 참가자가 변경되는 사유발생. 피치 못할 사정의 경우 보완책이 필요함.
 -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에 각 시, 군 문화원들이 어려움을 겪음. 위와 같은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바, 보완책이 시급함.
 - 지역 별로 참가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보다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참여하였고, 다양한 소품 및 의상 또한 축제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주었음.
 - 입구 확인부스에서 참가자를 신청서상 사진과 일일이 대조함.
 - 사전에 심사위원 회의를 진행하여 평가 항목에 따른 세부 기준을 논의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점심시간을 배치하여 심사위원, 사회자 및 행사 진행 요원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함. 한 팀당 경연 시간이 최대30분이었으나, 몇팀의 경연시간이 10~20분 내외로 예상시간보다 빨리 진행되어 심사위원, 사회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음.
 - 참가신청서상 작품시간과 실제 작품시간간의 차이로, 다음 팀이 준비되지 않은 채 경연을 이어가야 했던 문제점 발생으로 신청서상 작품시간 명기를 제대로 해,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체육관 특성상 입,출구가 다수로 경연퇴장시, 물품운반구와 혼동하는 경우 발생. 추후 안내요원 배치와 배너설치로, 혼동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개 폐막식 관련
 - 각 참가 단체 대표단이 지역팻말 및 깃발을 선두로 참가팀 전체 입장으로 진행함.
 - 예년에 비해 각 팀의 시상 이후에도 참가자들 및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 경연참가자 및 관객들이 시상 수상 이후 폐막 선언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할 기획 혹은 안내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짐.

○ 체험 및 전시, 부대행사 관련

- 경연대회에만 집중하기보다 축제에 참여한 공연참가자 및 관람객들이 주체적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끼리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도록 마련.
- 경연대회 중간에 '송파산대놀이'의 편성으로, 경연자들에게 일정부분의 여유시간미련과 전승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지루할 수 있는 일반 관람객들에게 누구나 즐겁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연관람 및 체험을 동시에 즐겨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 주차장과 경연장입구로의 바로 진입으로 참가자들의 유입이 어려웠음. 추후 하차지점 및 상세한 안내 배너 설치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2.3. 행사 운영 관련

- 참여단체의 안전을 고려 참가자, 관람객, 행사진행인력 등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원활하게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행사진행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적절히 활용, 축제장 곳곳을 수시로 순회하며 행사장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함.
- 행사 시 필요한 임차시설 수량을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였으며, 행사지역 현지 업체를 섭외, 돌발 상황에 대해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2.4. 홍보 관련

- 옥외홍보물 관련 시공 업체는 현지 업체를 섭외, 게점 관련 보수 및 행사 종료 후 철거까지 원활히 진행 함.
- 사전 홍보가능지역을 선정하여, 전단지 매수를 조정하여 홍보하는 것이 효율적임.

3. 향후 개선 방향

○ 경연유형 다양화의 필요성

- 전통민속예술 보존 및 계승의 취지를 받아서 경연대회를 치루는 것도 좋으나, 진정한 지역의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대화된 전통을 녹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창작을 전통요소에만 한정하지 말고, 여러 계층이 하나로 어울릴 수 있는 작품을 생산해내는 것이 홍보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봄.
-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창작물의 범위 설정과 적용가능성에 대해 토론을 생산하는 자리 필요.

○ 축제 일정 정할 시의 유의점

- 청소년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일정(중간고사)과 겹치는 일정은 피해야 함. 또한, 뜨거운 기운으로 연습하는데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하므로, 10월 중간고사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 또한 행사가 금, 토요일에 진행됨에 따라 금요일 관람객 유치에 한계가 있음. 이점을 고려하여 향후 축제 시기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시, 군 축제 참가자 및 관람객 확보 방안

- 각 지역의 정서와 풍습이 고스란히 담긴 민속예술이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사라져갈 위기에 처해 있음. 이에 민속 예술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축제 자체가 지역의 청소년 및 젊은 세대들의 살아있는 삶의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역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축제 자체를 현장학습 코스로 개발하거나 민속예술 관련 해설사를 배치하여 사라져가는 우리 선조들의 삶의 여유와 지혜를 축제 현장에서 생생히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함.
- 경연자 및 관람자들이 끝까지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 및 경품행사 등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만함.

제11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결과보고서

VII. 부록

The Kyeonggido Adolescence Folk Art Festival Report

제11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이모저모









제11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이모저모





제11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이모저모



